EAST ASIAN LIBRARY JAN 10 1983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 1025 1983년 1월 8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Saturday, January 8, 1983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각료회의기록 30년만에 공개

캐나다, 한국전 고심

미국이 세균전폈다고 비난한 선교사 기소될뻔

(오타와)1952년 한국동란시 캐나다의 루이·셍·로랭·트렌트수상 내각은 한국전에서 캐나다의 역할때문에 심각한 고심을 했음이 5일 공개된 정부기밀문서에 의해 밝혀졌다.

30년후에 세상에 공개된 각료회의기록에 의하면 당시 캐나다연방내각은 한국에서 미국이 세균전을 감행했다고 비난한 캐나다 연합교회 선교사였던 제임스·엔디코트 목사를 반역죄로 기소할 것을 고려했으나 반역죄로 기소될 경우 사형외에는 다른 형벌이 없기 때문에 기소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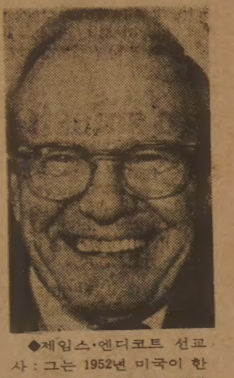
이 기밀문서는 이외에도 캐나다 연방내각이 한국전에 군대를 계속 파병하는 것과 새로운 항공모함 1척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다.

이 문서에는 당시의 내각회의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없었으나 한국전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문제가 가장 큰 주제로 토론되었음은 확실히 드러났다.

중국태생인 엔디코트씨는 중국공산당 혁명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 캐나다연합교단에서 쫓겨났었다. 그러나 교단측은 82년 8월 엔디코트씨에게 교단축출명령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사과문을 보냈다.

84세의 고령의 몸으로 현재 토론토에 거주하고 있는 엔디코트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세균전을 감행했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캐나다정부가 자신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내각회의의 기록은 기밀문서로 30년간 일반에게 공개 못하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임스·엔디코트 선교사 : 그는 1952년 미국이 한국전 당시 세균전을 감행했다고 주장, 캐나다 정부로부터 반역죄로 기소될 뻔 했었다.

한인회 정기총회 29일(토)로 연기

신구회장단 이취임이 있을 토론토한인회 정기총회가 오는 29일(토) 하오3시로 연기됐다.

한인회 박인순회장은 회계감사를 필하기 위해 총회시일을 연기했다고 6일 밝혔다.

한인회관(20 Mobile Dr.)에서 개최될 이날 정기총회는 업무, 감사, 결산보고에 이어 신·구회장단 이취임, 83년도 업무계획및 예산안 보고, 이사선임위원 인준등이 있을 예정이다.

한국산철판에 벌칙관세

덤핑으로 캐나다상품저해 이유

(토론토5일=연합)캐나다 정부는 최근 한국산 스테인레스 철판이 캐나다 시장에서 덤핑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대한 벌칙으로 19%의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관세청은 이같은 벌칙관세는 덤핑규제재판소가 한국산 철판이 캐나다 시장에서 덤핑하고 있음을 판정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말했다.

덤핑규제재판소가 덤핑을 확인하면 이 상품은 반덤핑관세를 물게되며 그 마진은 벌칙과세와 비슷한 정도가 된다.

한국은 81년도에 136,000달러어치의 철판을 수출했으며, 이는 80년도의 318,000달러에 비해 57.3%가 줄어들었다.

◆3주일전 생후 수시간만에 살얼음이 낀 진창에 버려져 있었던 아기가 토론토 식·칠드런(어린이병원)서 완쾌돼 집에 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병원으로부터 일리자벳·리라는 이름을 받은 이 아기는 부모가 나타나지 않아 양부모 집이나 입양기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버려졌을 때의 일리자벳양.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오늘의 예금금리(1/5부터)

한인신용조합			
기 간	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10%		8.75%
90일	10.5%		9.25%
180일	10.5%	10.25%	9.25%
365일	10.5%	10.25%	9.25%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김대중씨의 마지막 옥중편지

통일에 「4대국 보장」역설

(도꾜)지난 23일밤 워싱턴에 도착한 김대중씨가 서울대학병원 이송에 앞서 청주교도소에서 서울의 가족에게 띄운 마지막 편지 내용이 최근 밝혀졌다.

이 편지에서 김씨는 지난 10월 소련 문화성의 포포흐 미술문화재보존국장의 방한에 관심을 표명했고, 미·일·중·소 4대국과 관련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씨의 정치문제에 대한 의견이 외국에 전해진 것은 김씨가 80년5월 체포된이래 처음이다.

1971년 4월 대통령선거때 박정희 대통령과 맞서 후보로 나온 김씨는 공약으로 「4대국에 의한 한반도의 평화보장」을 주장했고, 이듬해의 남북한 공동성명 때에는 남북한의 UN 동시가입 구상을 밝혔었다.

정치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현재 이같은 그의 견해는 영향력이 없으나 잠재적 영향력을 가진 반정부정치가의 견해로서 주목을 끌고 있다.

11월2일자 편지 속에서 김씨가 밝힌 「4대국과 한반도의 평화」에 관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한달에 한번밖에 편지가 허락되지 않은 재소자 신분으로 봉함엽서에 깨알같이 썼다.

◆김대중씨

"남북한 동시유엔가입 중·소와는 관계강화"

집에서 온 편지에서 소련 고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는 것을 알고 큰 관심을 품었소.

지금으로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이르나 한국과 소련의 대화통로가 열린다면 적극적 평가의 가치가 있을 것이오.

우리 민족이 완전통일을 이루는 것은 국제정세나 남북관계를 보더라도 참으로 아득히 먼 장래로 느껴지오.

그러나 그 이전에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과 상호협력은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는 물론 같은 민족이 상쟁하는 비극과 무거운(군사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오.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 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한 쌍방의 성의있는 태도와 똑같은 비중으로 4대국의 협력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오. 그같은 뜻에서 우리들은 단절된 중·소양국과의 통로를 여는 일을 굳은 인내심으로 여러 각도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오.

결국 첫단계의 목표는 (1)남북한간의 확고한 평화체제의 수립, (2)남북한에 대한 4대국의 상호승인(즉 중·소가 한국을, 미·일이 북한을 각각 승인하는 것으로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는 방안), (3)남북한의 동시 UN가입등을 꼽을 수 있겠소.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민주정치와 국민경제의 착실한 발전을 통하여 북한이나 중·소 양국으로 하여금 평화공존 이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실감하도록 해야할 것이오.

한국내의 참된 단결과 번영만이 전쟁억제와 평화의 길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오. 이같은 발판 위에서 우리들은 4대국에 의한 평화협력 문제의 추진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할 것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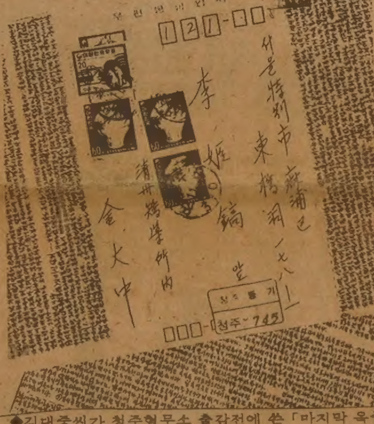
첫째로, 미·일, 특히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와 노력아래 온갖 일을 추진해야 하오. 민족의 이익을 위해 미·일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청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오.

둘째로, 중공및 소련과 동등한 위치에서 스포츠, 학술등을 통해 접촉한다는 기본자세는 항상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또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오.

세째로, 4대국 관계의 추진에는 당사자인 4대강국뿐 아니라, 유럽 여러나라등 영향력 있는 우방이나 중립국가의 성원을 얻도록 힘써야 할 것이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북은 중·소와 동맹관계에 있고, 남은 미·일과 동맹, 또는 준동맹관계에 있음이 사실이며, 무엇보다도 한반도가 4대국에 의해 에워싸여져 있고, 각국의 큰 이해대상의 지역이라는 지정학적,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들은 운명적인 4대국과의 관계를 중시 아니할 수 없소.

(2면에 계속)



◆김대중씨가 청주형무소 출감전에 쓴 「마지막 옥중편지」 — 수취인은 부인 이희호 여사로 되어있다.

란콤화장품 대리점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245 3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Y 직원모집

- 휴학중인 학생 또는 실직중인 청소년(만16세-25세) 남녀 불문
- 주 $140
- 기간(3개월간)
- 이것은 주정부와의 협조하에 채용하는 것임

감사의 말씀

1월1일 Y신년친교회를 도와주신 개인및 단체에 감사를 드립니다.(무순)

실협인협회(차선겸·강공선), 조흥은행(이원순), 장로연합회(구연원·김회학·오윤섭), 노인회(조영호·한덕창), 한인회(장순채·변의섭·이기훈), 성서연구회(주성한), 총영사관(조홍래·고재혁), 연대동문회(박남희), 고대동문회(서준경), 한국일보(김명규·이석현), 민중신문(정철기), 코리아저-널(유영린), 뉴코리아타임즈(전충림), 대한교회(조남유), 연합교회(이상철), 한인교회(반병섭·김예정·성수용), 남강식당(이영규), 한인장로교회(박희민), 교육연구회(윤택순), 알파와이즈맨즈클럽(천중환·나상선), 베타클럽(홍승규·박대현), 한일은행(한철환), 한인회관관리위(조한철), 교역자협의회(안병한), 웨스톤한글학교(김옥자), 라이온즈클럽·Y이사회(구상회·전태균·김순창·송화섭·김회삼), 무용학원(김용순), 신용조합(이홍렬)

영어토론클럽 회원모집

때: 1월15일(토) 오후4시~6시
곳: YMCA이층 이사실
고문: Miss Susan Lesjak외
회비: 월 $5정도
•영어토론을 통해서 캐나다시사문제·사회문제등을 배우며 영어실력을 향상시킴.
자격: 영어를 필요로 하는 직장에 다니거나 기본실력이 있는 사람 체면을 차리지않고 영어를 배울 결심이 있는 사람.

Y 청소년(합창단)클럽 회원모집

때: 1월20일(목) 하오6시
곳: Y3층 강당
자격: 남녀 고등학생·대학생, 25세미만의 직장청년

성서연구회 신년모임

때: 1월9일(일) 오전7시~8시반
곳: Y이사실
•정초성서연구및 떡국파-티
회비: $2.

Y 자원지도자 모집(Volunteer)

-Y체육활동(수영·배구·탁구·농구·Fitness등)의 보론티어
-청소년합창단의 지휘자·반주자·후원이사장및 이사
-Y사무·안내·회원모집·모금등 협조할 사람

웨스톤Y한글학교

(노스욕시교육위와 공동주관)

◆수요한글학교(Daystrom 국민학교)
유치반(오정숙선생)·중급반(이영희선생)
초급반(김옥자선생)·상급반(최춘자선생)
◉때: 매주수요일 하오 4시반~7시
◉회비: 무료
◆성인영어교실(월·수 하오7시~9시 1월10일 개학)
노인반(최춘자선생)·회화반(고희경선생)

제5회 스키-강습

때: 2월5일(토) 오전9시~5시반
곳: Snow VAlley 스키장
선착순 30명 모집

Y 이민봉사센타 안내(무료)

이민 오신지 3년미만의(영주권소지자) 정착을 위해서 YMCA는 연방정부 이민취업성과의 협조하에 다음 봉사를 제공합니다.

1. 통역·번역(호적등본등)·문서작성
2. 동반업무(이민국·맨파워)
3. 상담및 안내

•단, 전화로 사전 시간약속을 하고 찾아 주십시요. (536-1166 미스터 김)

Y 토요학교 학생모집

(토론토시교육위와 공동주관)

때: 1월8일(토) 오전10시반~오후1시
곳: Bickford Park고교(777 Bloor St. W. 아리랑건너편)
회비: 무료(베이비시팅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한글학교 유치반…김용순선생(노래·유희·말하기)
초급반…김필숙선생(읽기·쓰기·말하기)
중급반…조인숙선생(작문·읽기·회화)

◆영어교실 초급A반…김영훈선생(ABC부터)
초급B반…최기선선생(기본영어)
초급C반…스잔·레스작선(회화문)
중급반…정호영선생(생활영어·문법)

◆취미교실 토요일 오후2시부터 Y회관 931 College에서)
무 용 반(2시~3시)…배미희선생
미 술 반(2시~3시반)…정크리스티나 선생
태 권 도(4시~5시반)…이태우·황타이사범
기 타(2시~3시)…권혁일선생
피 아 노(2시~5시)…노경심선생(개인지도)
바이올린(3시~4시)…이진화선생(개인지도)
자유수영(2시~6시)…Y회원에 한함.
•취미교실은 3월말까지 회비가 $25, 두과목이상 $40, 한가정서 두어린이 이상이면 $5씩 할인함.

토론토한인YMCA
총무 김창열 ☎ : 536-1166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1월분 베이비보너스 $28.52

물가인상율 대신 인상억제책에 근거

연방정부는 새해 1월분 베이비·보너스(패밀리·어라우언스)를 자녀 1인당 $28.52씩 지급한다.

종전대로 물가인상율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 지급될 경우 $29.92이어야 했으나 정부는 6~5% 인상억제 지침에 맞추어 1월분 베이비·보너스 액수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9.92대신 $28.52씩 지급함으로써 정부는 약 9,500만달러의 국고를 절약하게 됐다.

현재 베이비·보너스, 노인복지연금등의 인상안은 의회에 제출돼있으며, 의원들은 오는 17일에 다시 등원한다.

따라서 정부는 의회의 결의를 기다리다가 베이비·보너스 지급이 늦어지기 보다는 정부지침에 맞춘 액수를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도의 베이비·보너스는 $26.91이었다. 베이비·보너스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지급되는 캐나다 정부의 양육보조금이다.

정부의 6~5% 인상억제책이란 물가고를 잡기위해 모든 공공요금및 임금인상폭을 83년도에는 6%, 84년도에는 5%로 제한시킨다는 지침이다.

정부의 이 지침이 있기전 모든 연금이나 공무원의 봉급등은 물가인상율에 맞추어 인상돼왔다.

◆에를라 여성지위담당장관

"배우자공제 줄이고 양육비혜택 늘려라"

여성지위 담당장관 주장

(오타와)직업을 갖지 않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세금공제혜택을 줄이는 대신 어린이 양육에 주는 공제혜택을 더욱 늘리라고 여성지위담당 주디·에를라장관이 주장했다.

지난 주말 TV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에를라 장관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를 탁아소나 베이비·시터에 보내는 직업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세금제도에 따르면 직업을 갖지 않은 배우자를 가진 사람은 최고 3,000달러까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양육공제는 자녀 1인당 1천달러까지 모두 4자녀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에를라 장관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제안을 처음 각료들에게 비쳤을 때 대부분 남성인 동료각료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호의적이었다고 말했다.

아시아축구연맹회장

북한축구 폭행 비난

(마나마 3일=연합)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인 다툭·세리·하치·함자씨는 뉴델리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축구팀이 태국심판에 폭행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축구장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폭행경향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함자회장은 지난 주말 봐다리 영자신문인 걸프·타임스(Gulf Times)와의 회견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폭력요소들을 심하게 다스릴 작정"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선수들이 뉴델리·게임에서 난폭한 행위를 자행한데 대한 벌칙으로 2년간 출전정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북한인들은 교훈을 배웠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함자회장은 또 "북한관리중의 하나는 국제축구협회연맹(FIFA)로부터 종신 참가금지조치를 받았으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좋은 교훈이 된다"고 강조했다.

올림픽 위원회

신년 파티개최

재캐나다올림픽후원회(회장 함의현)의 신년파티가 8일(토) 하오6시 올드밀 레스토랑(21 Oldmill Rd.)에서 열린다.

회비는 커플당 $40, 싱글 $25.

연락처는 535-3305, 445-6704.

페이·TV 출범 20일 남아

현재 25,000세대 신청

출범 20일을 앞둔 유료텔레비존(Pay-TV)을 보겠다는 신청자는 현재 25,000세대에 불과하다. 이 숫자는 TV세트가 있는 캐나다 영어인구 370만세대의 1%도 못된다.

그러나 유료TV회사 당국자들은 금년초에 본격적인 접수가 시작된 것을 감안할 때 아직도 많은 가정이 계속 신청을 해올 것으로 낙관적인 예상을 하고 있다.

25,000 신청세대중 3개 유료TV를 모두 보겠다는 가정은 15%, 2개채널 희망세대는 30%, 1개채널 희망세대는 55%였다.

유료TV의 신청을 받고있는 TV케이블회사들은 금년말까지 캐나다영어인구의 약 30%인 1백만세대가 신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페이-TV회사의 하나인 훠스트·초이스(First Choice)사는 2월1일 아침 6시 영화 「스타·워스」 방영을 기점으로 개업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보다는 약간 늦게 시작할 것으로 알려진 슈퍼채널(Super channel)도 「스타·워스」를 방영할 예정이다. 주로 고전음악, 발레등을 보여줄 C채널은 아직 정확한 일정은 없다.

그러나 3개 페이-TV회사가 모두 2월중 제인폰다 주연 「금빛 연못」을 방영할 예정이다.

지난 12월12일 미국의 페이-TV회사에 최초로 방영된 이 영화는 미국 3대(ABC, NBC, CBS) TV회사의 시청자를 합한것 보다 많은 가정이 이 영화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헝가리언 식당주인 페렌치씨

17년간 총25번 털려

작년12월에만도 3번

연말연시들어 상점및 주택침입절도가 늘어가고 있음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베이·스트릿의 헝가리언 레스토랑의 주인 티보·퍼렌치씨의 경우는 좀 심하다.

17년간 같은 장소서 영업을 해온 그는 지난 12월에만도 3번, 지금까지 총 25번의 침입절도를 당했기 때문이다.

지난2일 새벽에도 식당의 유리창과 지붕이 깨진 것을 발견하고 경악한 페렌치는 이젠 아침에 일하러 오기가 두렵다고 말했다.

도둑맞는데도 이력이 붙어 절대 돈을 남겨둔채 문을 닫지 않는다는 그는 이번에도 잃은 돈은 없지만 살살이 뒤지느라 여러군데 파손시킨 도둑덕분에 $1천달러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베이스트릿에서 17년간 헝가리언 식당을 경영해 오면서 25번이나 도둑에 털렸다는 페렌치씨의 부인(왼쪽)과 웨이트레스 스잔양이 도둑이 깨놓고 간 유리창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다.

金聖鐘작

<143>

출발 ㉔

몇차례 情통해온 과부찾아 술집으로…

「왜 나를 미행했어?」

머리가 완전히 난간 저쪽으로 젖혀졌다.

「저…저는 명령을받고 따랐을뿐…」

「누가 명령했어?」

「조직에서…」

「어느 조직이야?」

「그…그건 말할수 없읍니다.」

「그럼 죽어.」

그는 손에 힘을 주었다. 상대방 사나이는 비명을 질렀다.

「토…토라이앵글…」

「트라이앵글은 어디 있나?」

「그…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는대로 말해봐.」

「두목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명이라는것 외에는…」

「목숨을 건진걸 다행으로 알아.」

그는 미행자를 일으켜 세운다음 명치를 쳤다.

미행자는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쳐박은채 실신했다.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살려주는 거야. 가서 내 말을 그대로 전해. 허튼 수작 하지 말라고. 다시 미행하면 그때는 살려두지 않는다.」

그는 피스톨에서 탄창을 빼내 건너편 옥상으로 던져버렸다. 피스톨만 대쪽 옥상으로 던졌다.

朴 男 그림

택시를 잡아 타고 나온 그는 차를 몰고 로망으로 갔다.

로망은 고급술집이었다. 주인은 36세의 여인으로 그와 몇차례 정사를 가진 적이 있는 과부였다. 몇이 나타나기전까지는 그는 그 주인마담을 찾곤 했는데 몇이 나타나고 부터는 그녀를 멀리했다.

「오래 나가 계실거예요?」

그는 가방을 받아들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술픈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잔에 술을 따랐다.

「어디에 가실건가요?」

「유럽 여기저기…」

「급해… 주실래요?」

「글쎄…기다리지는마.」

「당신은 나빠요.」

그녀는 원망어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거기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좋은 얼굴에 큰 눈을 가지고 있었다. 몸집은 좌았다. 머리는 뒤로 틀어올리고 있었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녀가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알고 있어.」

「앞으로는 저를 찾지않으시겠죠?」

「아니, 그렇지는 않을거야. 이렇게 왔지않아.」

「그럼 어떻게 하지요?」

「그렇게 따지지마. 나는 변수면단 말이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강남씨 컬럼 〈속담풀이 시리즈〉

가재는 게편이다

—소속의 확인

◆오강남씨

유유상종, 사정이 비슷한 사람끼리 자연히 가까이 모이게 되는 것은 과부사정 과부가 아는 것처럼 서로 이해소통이 그만큼 잘되는 까닭이리라. 따라서 같은 고향사람, 같은 학교 졸업생, 같은 문중의 사람 등등, 지연, 학벌, 혈연, 문벌등에 따라 서로 편을 짜게 되는 것을 본다.

A와 B 두사람이 논쟁을 하고 있다. A는 나하고 어릴때부터 같은 동리에서 자라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요즘도 자주 만나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와 의견을 나누는 처지다. A의 생각하는 방법이나 논법이 나와 비슷한데가 많다. 따라서 A와 B 두 사람의 논쟁에서 A의 논점이 내게 더 친숙하고 더 설득력있게 들린다. 그의 편을 들게 된다. 자연스런 일이다.

A와 B 두모임이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A는 나와 같은 직업에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거기 가면 서로 대화가 통할 것 같고, 내 직업에 관계되는 지식을 서로 나누며, 피차 유익되는 일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을것 같다. A에 가입하고 A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힘쓰기로 한다. 당연한 일이다.

두 경우 모두 공동의 관심사, 공동의 이상, 공동의 목적, 공동의 의미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일에 뜻이 맞아 한편이 되는 경우다. 통계적으로 보아 비슷한 환경, 비슷한 교육, 비슷한 생활양식을 가진 사람들사이에서 여러가지 공통성이 많이 발견되고, 이런 사람들끼리 공동의 관심사를 위해 한편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은 자연적 귀추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편을 짜는 유일한 기준을 외부적, 외형적 조건이 비슷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면, 두 사람이 논쟁을 하는데 쟁점이나 내용 같은 것과는 상관없이 A가 내 동창이니까 이쪽 저쪽 들어볼 것 없이 무조건 A편을 들어야 한다든가, 두 모임이 회원을 모집할때 모임의 목적이나 그 목적을 수행하는 방법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이 A가 내 고향사람들이 많은 곳이니까 덮어놓고 거기 가담해야 한다든가 하는 것이다. 심한 경우 우리주위에는 인류사회의 정의, 평등, 사랑, 평화, 신뢰등의 아름다운 이상을 추구하고 실현하려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내 집안사람이나 내 교파사람들이 아니면 나와는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라 간주하고, 비록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인류와 국가사회에 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내 고향사람이나 내 학교동창이면 눈을 감아주거나 심지어 그들과 합세하는 일이 비일비재함을 보게 된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할까? 어느 편에 서야 할까? 하는 문제에 부딪쳤을때, 보다 높은 차원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연, 혈연, 학벌, 문벌등의 외부적 조건만 같으면 절대적으로 그편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재나 게 같은 하등동물의 본능적 발상법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나 언제나 안으로만 굽어있는 팔은 곰배팔이다. 정의의 태양을 향하는 해바라기의 모습이 아쉽다.

뇌이식도 가능

윤리문제만이 남아

의술의 발달로 이제 뇌이식수술까지 가능하게 될것 같다.

호주 시드니 플린더즈의료센터의 알란·하비박사가 주도하는 연구팀은 부상 혹은 질병으로 뇌를 손상당한 사람에 원숭이의 뇌를 이식, 시각과 언어능력등 일부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대학에서는 뇌자체에서 부상을 치료해 주는 특수화학물질을 생산해내고 있음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 이 특수물질이 이식된 조직과의 연결을 도와 기능회복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알란·하비박사는 메디칼·포스트지에 보낸 보고서에서 뇌이식은 다른 종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뇌이식은 거부반응에 의한 위험도가 낮고 외과기술적인 어려움도 그다지 크지 않으나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조창환목사 위임식

메시아한인교회

메시아한인교회는 조창환 목사 위임식을 오는 9일 하오3시30분 교회당에서 갖는다.

전택균장로가 공동의회의장으로 있는 메시아한인교회는 1580 McCowan Rd.(at 401)에 있다.

한양공고 동문회

15일 신년파티

한양공고 동문회(회장 김오석) 신년파티가 15일(토) 하오8시 뉴서울식당에서 열린다.

연락처는 김오석 534-3648, 신창국 742-9181, 김풍수 832-1573.

중앙교회 부흥회

강사에 최복규목사

토론토 중앙교회(담임 정관일 목사)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신년축복대성회를 갖는다.

강사로는 세계부흥선교회 회장이며 대한신학교 교수인 최복규 목사가 초빙됐다.

중앙교회는 502 Bathurst와 College에 위치해 있다.

(1면에서 계속)

김대중씨 옥중편지

그뿐 아니라, 한국은 세계 1백수십개국중, 인구로 보아 20번 이내의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UN에도 가입하지 못했고, 세계 많은 나라와의 외교관계도 수립되고 있지 않은 불합리한 현실도 4대국과의 관계에서 실마리를 잡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할 것이오.

그리고 우리의 민족적 숙원인 남북통일 역시 4대국의 협력이 불가결의 요소임은 재삼 말할 것도 없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들은 우리와 UN, 4대국이 불가분의 함수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할 것이오.

지난 71년(대통령선거때), 내가 4대국에 의한 평화협력 추진을 주장했을 때 (박정권은) 「우리의 안전보장을 남에게 의존하려는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소.

72년의 7·4공동성명(주: 남북한정부가 72년7월4일 남북한의 자주적, 평화적, 민족대동단결에 의한 통일을 주창한 공동성명) 직후에 남북한의 동시 UN가입과 동시외교를 주장했을 때도 나는 당시의 정부로부터 「터무니없는 의견」이라고 입측을 당했소. 그러나 그후의 흐름이 모두 그러한 방향으로 향한 것을 우리를 모두가 알고 있소.

이상 말한 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조정,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오.

구독은
533 2361

새로 개업한
일본식당
"KURI"
栗林
□각종 스시및 일본식요리
□부페식파티등 단체예약 환영
(100명이상 수용함)
□술 면허 있음
(새벽 1시까지 open)
◀ 영업시간 ▶
월~토 11:30AM-2:30PM
6:00PM-1:00AM
일요일 6:00PM-1:00AM
165 Bloor St. E.
(블루어×Church)
☎: 960-1765

온타리오 한인상공인협회 회원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완전한 차체수리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수리중 차 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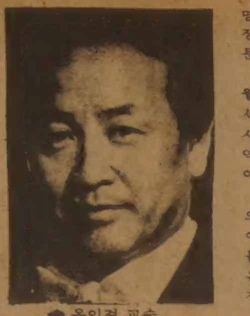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LTD.
69 John Street, Missi
Bus.: 275•3131, 3133
R 457-1234
정 창 현
PLAZA
JOHN ST.
PEAK-O-DAWN RD.
DUNDAS ST. HWY 5
Q.E.W.
HWY 10 HURONTARIO ST.

천부교전도관
새해를 맞이하여 이기신
우리하나님의 은혜가 이땅
캐나다에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카나다에 거주하시는
천부교전도관 식구들을 찾고
있읍니다.
먼저 전화를 주세요.
☎: (416)745-7463
MR. 송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테너 옥인걸교수 초청

성가대 발성 강의



◆옥인걸 교수

옥인걸 교수를 초청한 '제1회 음악봉사자들을 위한' 발성강의(Voice Workshop)가 21일(금), 22일(토) 이틀동안 빌라델비아장로교회에서 열린다.

이 발성워크숍은 본격적인 성가대 봉사를 위해 꼭 필요한 소정의 과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주최측인 빌라델비아장로교회는 매년 2회씩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강의에는 개인레슨도 가능하다.

초청강사인 옥교수는 69년 카네기홀에서 독창회를 가졌으며, 현재 미국 로웰대학 성악과장으로 재직중, 지난 9월 서울에서 귀국독창회를 가진바 있다.

참가희망자는 미리 등록해야 하며, 연락처는 박원조(278-4694), 배효중(274-8503)이다.

미시사가 토요학교 1-12학년 학생모집

미시사가의 코리언·캐네디언·아카데미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하이웨이 10과 Q.E.W.의 퀸·일리자벳·시니어스쿨에서 개최되는 이 학교는 한국어를 필수과목으로 하며 선택과목은 영어, 수학, 미술, 콤퓨터, 태권도등이다.

수업료는 추후 발표된다.

연락처는 Mr. 장(823-5774), Mr. 우(621-2189), Mr. 천(275-3274), Mr. 오(270-3118)등이다.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등불토요학교 학생모집

강사진은 UT 학생들

토론토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이 강사진으로 구성된 등불토요학교가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하오3시까지 5학년에서 10학년까지의 학생을 상대로 진행되는 등불토요학교는 오는 15일부터 4월23일까지 15주동안 계속된다.

등록금은 1주일에 10달러이며 학생수는 5~10명, 지도과목은 영어, 수학, 한국어등이다.

수업은 한인회관(20 Mobile Dr.) 강당에서 있게되며 문의처는 757-7828(김지현)이다.

"몬로는 살해되지 않았다"

LA 검찰 재 조사결과 발표

(LA)LA지방검찰은 지난주 여우 마리린·몬로양이 피살된 것이라는 주장을 일축하면서 그녀의 죽음은 자살 혹은 실수에 의한 약물과다복용에 의한 것이라고 재조사결과를 밝혔다.

LA지방검찰청 죤·벤·캠프 검사는 29페이지에 달하는 몬로의 사망원인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살해와 같은 비열한 행위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 3개월반에 걸친 조사결과"라고 기술했다.

LA검찰청이 몬로양의 사인을 재조사하게 된 이유는 10년동안 몬로양의 사인을 조사해온 닉·헤리스탐정사( )의 미로·스페리거리오씨가 몬로양의 사망 20주기인 지난해 8월 기자회견을 통해 몬로양은 분명히 살해된 것이라고 주장, 재조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몬로양은 36세이던 62년8월5일 그녀의 저택 침실에서 시체로 발견됐으며, 당시 시체검시관은 사인을 약물과다복용에 의한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렸었다.

몬로양의 죽음을 살해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해온 이 사설탐정은 이 보고서를 논평하면서' 이는 사실 은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로·스페리거리오씨는 "우리는 일부 증인이 LA지방검찰청에 거짓진술을 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검찰청이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페리거리오씨는 이어 "나는 검찰에 몬로양이 살해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했으며, 또한 살해범들의 정체를 알려주었다"고 밝혔다.

스페리거리오씨는 검사들에게 살해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으며, 공범자들은 "매우 유명한 정치인, 20년전 유명했던 생존 배우, 의사 또는 의학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스페리거리오씨와 52년10월4일 몬로양과 멕시코에서 비밀리에 결혼했다고 주장하는 로버트·스라즈씨는 다같이 몬로양은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로버트·케네디씨와의 로맨스가 끝난 직후 살해되었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몬로양이 케네디와의 관계와 카스트로 쿠바대통령에 대한 CIA음모등을 토의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자청할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살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청의 보고서는 "현재 알려진 모든 증거로 볼때 몬로양이 살해되었다는 소문은 날조로 밖에는 볼수가 없다"고 밝히면서 스페리거리오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20여년전 숨졌으나 최근까지도 그의 죽음이 피살이다, 자살이다로 논란이 계속된 마릴린·몬로. 그녀는 생전에 고로버트·케네디등 정계인사와의 친분도 가졌었다.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각종김장김치 주문환영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구독신청은 533-2361

플로리다단체관광휴가모집

1. 출 발: 1월19일(수)부터 7박8일
2. 관광지: 디즈니월드(동물원·식물원·수상스키쇼·해변가 휴양)
3. 요 금: $440(왕복항공료·숙박비·관광비·지상교통비)
※식사는 단체 또는 개별취사 가능.
4. 마 감: 1월15일(토) 오전중
⊙48명 정원중 40명 확보. 8명추가 선착순 모집.
5. 기 타: 한국인안내자 동반
연세드신분 특히 환영.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2156 김 창 범
신세계 NEW WORLD TRAVEL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三國志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한인의날 행사 재정보고

1982년 10월초에 있은 한인의날행사 재정보고를 회원여러분께 지상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1983년 1월

캐나다한인총연합회

회장 오 기 송

FINANCIAL REPORT

Celebration of Korean Heritage Day '82

INCOME

Federal Government	$11,000.00
Korean Government	8,421.23
Banquet Tickets	2,400.00
Member Fee(Individual and Reg. Org.)	1,950.00
Donation	424.20
Totel :	$24,195.43

EXPENSES

Air Fair(32 persons)	9,265.85	Meeting(Planning, Room, Food)	349.65
Banquet	4,130.40	Office Supplies	91.56
Hotel(31 persons)	1,974.14	Honorarium(Dancer, Paper Presentation)	700.00
Assistance for 14 Reg. Orgs.	1,400.00	Meals(Participants for 3 days)	1,023.29
Communication(Tel, Mail, etc.)	438.55	Plaques, Bouquet	551.23
Printing(Invitation, Program, Ticket)	411.14	Future Administrative Expenses	2,641.83
Taxi, Parking, Gas	308.60		
Publicity(Newspapers)	659.19	Total :	$24,195.43
Room Decoration	250.00		

300點이상 4천명線

例年比 평균 10點높아 치열한 눈치作戰 펼듯

83학년도 대입학력고사결과 3백점이상의 고득점자가 당초 예상보다 많은 4천명선인것으로 4일 밝혀졌다. 전체 평균이 예년보다 10점가량 높으며 대학입시에서 가장 경쟁률이 격심한 2백50점대가 82학년보다 무려 2배나 늘어난 4만1천명선으로 밝혀져 금년도 대학입시는 그 어느해보다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 이밖에 이번 학력고사에서는 만점인 3백40점 (체력장 20점포함)에 가까운 고득점자가 10여명이나 되며 고득점에 가까울수록 동점자가 많은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학입시 사상 처음으로 0점자가 1명 생겼다.

大入學力考査 오늘상오7시발표

2백50點이상 작년보다 2倍 성적분포 양파型、0點도 1명

李奎浩문교부장관은 이날 하오 『이번 학력고사채점결과 성적분포에서 1백점만점으로 할때 60점선이 가장 많은 점수대 (質的분포)를 보여 대학입시의 선발기능이란 면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등학교교육의 정상화기여라는 측면에서 볼때 대단히 만족스런 결과를 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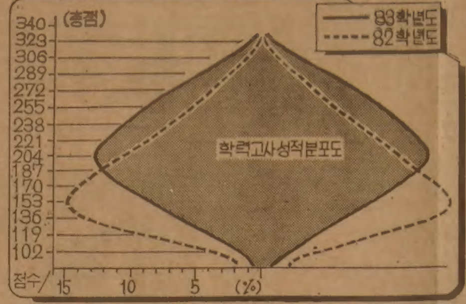
李장관은 또 『이번 학력고사 성적분포에서 3백점이상의 고득점자는 예상보다 많은 작년의 4배가넘고 5배에가깝다』고 밝혔다.

문교부입시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학력고사의 전체적인 성적분포는 중하위권이크게 불어난 82학년도의 다이어먼드형과는 달리 2백4점대가 가장 두텁고 중상위권이 부푼 양파형의 분포를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입시 전문가들은 이같은 결과에 따라 83학년도의 대학입시는 명문대인기학과일수록 고득점자들이 학교및 학과선택에 큰 혼란을 당할것이 예상되며,눈치작전의 부작용인 명문대학의 미달사태가 작년과같이 많이날 것으로 내다 봤다.

입시전문가들은 또 ◢고득점자쪽에 동점자가 많이몰려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고교 3년전과정이 내신성적으로 반영 (전대학이 평균30%이상)돼 입학사정에서 내신성적이 합격여부의 가장큰 변수로 작용하게될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이번의 대학지원에서는 3백점이상의 고득점자는 작년보다 5점, 2백80~2백90점대는 2~3점, 2백50~2백70점대는 10점정도높여 지원하는것이 안전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문교부는 5일상오7시 전국동위별 득점자누가분포표를 이번 학력고사의 성적분포를 발표하고 오는 누일의 성적통지표교부를 위해 이날 하오부터 성적통지서를 각시 도교위에 발송, 학생들은 빠르면 6일저녁부터 자신의성적을 알수있게된다.

名門일수록 미달사태빚을듯

해설

83학년도 대입학력고사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고득점자가 과연 예상만큼 많아질것이냐에 있었다. 4천명이라는 숫자는 이같은 예상을 뛰어 넘는것. 이결과를 놓고 입시전문가들은 해마다 고질처럼 되풀이해온 입시혼란이 금년도에도 「따논 당상」이라고 표현했다. 고득점자가 많아지고 입시경쟁률의 관건을 쥔 이른바 2백50점대의 폭이 예년보다 더욱 두터워 졌기때문에 나온 예상이다.

전문가들은 또 명문대일수록 작년과같은 미달사태를피할수 없을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학들의 모집단위가 거의 대부분 학과단위 (소계열포함)로 세분됐고,예년보다 입시정보가 크게 통제돼 합격권 점수내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작년도에는 수험생들이 대체로 하향 지원, 명문대 인기학과에 미달사태를 빚었었다.

대입학력고사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기여와 대입의 기준제시라는 선발적 기능을 동시에 갖고있으며, 이 두기능이 이율배반으로 작용하는 모순을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이번고사는 전자의 경우를 위해서는 성공한 사례라 할수있으나 선발적기능인 후자는 실패할것이라는 평를 낳는다. 【李鍾九기자】

韓·日經協등 현안논의

李外務, 어제 워커·마에다大使 만나

李範錫외무장관은 4일하오 리처드·워커駐韓美대사와 마에다·도시카즈(前田利一)駐韓日本대사의 예방을받고 韓·美·日간의 현안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李장관은 韓日간의현안인 경제협력문제에 관해 워커대사와 20여분간 의견을 교환한후 뒤이어 마에다대사와 30여분간 이문제를 논의한것으로 알려졌다.

政界、2~3월께 대폭改編

各黨전당大會 계기 黨職·국회要職등 정비

제5공화국 出帆3년째를 맞는 83년새해에는 행정부를 비롯하여 국회와 각정당등 政界전반에 걸쳐 대폭적인 改編이 이뤄질것으로보인다. 與黨인 民正黨, 야당인 民韓黨과 국민당등은 대체로 오는2~3월께 創黨이후 처음열리는 定期전당대회를 계기로 현체제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고 국회의장단과 常任위원장도 4월초로 모두임기가 끝나기때문에 국회要職도 아울러 전면개편이 예상되고있다.

특히 與黨인 民正黨의 黨職개편은 국회뿐아니라 행정부의 개편과도 불가피하게 관련성을 가질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새해의 政界개편은 규모가 클것으로보여지고있다.

특히 올해는 각정당의 전당대회에이어 85년초의 12代總選을 앞두고있다는 점에서 각당의 對內的인 체제개편補完은 곧 선거체제의 구축과도 일련의 상관관계를갖고있기때문에 제5공화국의 새로운 정치질서의 구축이라는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각정당은 1월중에 맞게되는 創黨 2주년과 3월까지는 치를 예정인 소黨대회를 계기로 黨의 조직을 전면점검, 제각기 體質강화방안을 마련하는데 黨力을 집결시킬 방침이다.

民正黨은 지난연말 의원세미나에서 李載瀅대표와 權翊鉉사무총장이 밝힌 黨구조및 조직, 그리고 黨憲개정방향을토대로 구체적인 黨체질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17일부터 경남 釜山과 전남 海南을 시발로 본격적인 지구당 개편대회에착수, 오는 2월10일까지 92개지구당 개편대회를 완료하고 3월말께 全黨大會를 가질 예정이다.

民韓黨은 5일서울鍾路·中區지구당을 시발로 1월중에 나머지 지구당 개편작업을 끝내고 2월초에 全黨대회를 개최, 黨內안정과 결속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대폭적인 黨職개편을통해 黨의기풍을 쇄신할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당은 6일 금년들어 첫 당무회의를 소집, 18개 유고지구당 처리문제와 1월말~2월초로 예정하고있는 전당대회 준비를위한 실무위구성과 黨外인사 迎入문제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11일 海外공관장회의

◇ 全斗煥대통령내외가 3府요인 등으로부터 新年賀禮를 받은뒤 다과를들며 환담하고있다.

금년도 제1차 海外공관장회의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亞洲·美洲·中東및 아프리카지역 50개 公館長이 참석한가운데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공관장회의에서는 이들 4개지역에대한 금년도 우리나라의 對外활동전반에 관해 광범위하게 검토되며 특히 제3세계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방안및 경제협력 通商증진 對外홍보활동 僑民보호문제등이 논의될것으로 알려졌다.

이번회의에 참석하는 공관장들은 회의기간도중 우리나라의 주요산업시설을 시찰하고 의식개혁교육도받게된다.

"모든어려움 슬기롭게 대처"

全대통령、각계인사 新年賀禮서

全斗煥대통령은 4일하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청와대에서 丁來赫국회의장 俞泰興대법원장 金相浹국무총리등 3府요인67명,李載瀅 대표위원등 民正黨간부27명과 金潤鎬합참의장을 비롯한 軍고위장성15명등 모두 1백9명으로부터 新年賀禮를 받고 다과를 베풀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지난해는 우리국민들의 和合과 단결만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수 있다는 값진 敎訓을얻은 한해였다』고 회고하고 『금년에도 국제정세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국민모두가 단합해서 슬기롭게 대처해나가면 더큰 발전을 이룩할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 『우리는 지난 한해동안 온갖 어려움속에 모든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노력한결과 당초목표 보다는 적으나 다른 국민들이 기적이라고 부러워할 정도의 발전을 이룩할수 있었다』고 밝히고 『금년한해도 작년의 경험을 살리고 좀더 창의력을 발휘해 지혜를 모아 노력하면 다른나라의 어려움을 오히려 우리가 발전하는 계기로 활용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내외는 이에 앞서 이날상오 咸秉春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비서실의 비서관급이상 張世東경호실장을 비롯한 경호실간부들로부터 신년賀禮를 받았다.

內藏山서 新正연휴

全斗煥대통령은 全北內藏山에서 새해시책 구상하며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냈다.

全대통령은 영부인 李順子여사및 자녀등 가족과 함께 1일하오 內藏山에 도착, 1泊한뒤 2일에는 井州시청에 들러 柳秀澤시장으로부터 간단한 市政보고를 받고 이어 井邑郡內藏面 松竹마을의 새마을지도자 柳在千씨집에 趙澈權지사, 柳시장등과 들러 차를 함께했다.

國會議員 月세비 1백63만3천원

국회의원들의 歲費(非會期기준)가 금년부터 1백60만9천원에서 1백63만3천5백원으로1.5%인상된다.

금년부터 의원들의 歲費중 수당은 60만9천원에서 63만3천5백원으로 오르나 월1백만원인 立法활동비는 오르지않아 歲費총액은非會期기간을기준으로하여작년보다2만4천5백원이인상된것이다.

그런데 의원들은 의원수당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每月 차관봉급과 같은 액수의 수당과 입법활동비를 歲費로 받으며 會期중에는 특별활동비(1일 1만원)를 별도로 지급받는다.

白雪의 智異山 頂上서 새해를…

정상에서 신년을 맞는다。智異山천왕봉 대기에는 정초부터 원색차림의 등산객들이 몰려들어 백설에 뒤덮인 봉우리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호연지기를 마음껏 폈다。【천왕봉정상=鄭範泰기자찍음】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社会漫評

地平線

12支의 마지막인 돼지해의 첫 시동이 걸렸다. 돼지는 닭, 개, 소등과 함께 사람에게 가장 일찍 길들여 졌던 짐승이요 또돼지는 담백질의 귀중한 공급원 구실을 다 해왔다. 이 사실은 예부터 발견되는 짐승의 뼈 가운데서 돼지의 뼈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짐작이 가는 일이다. ▼이렇게 사람과 가까운 짐승이고 보니 일상 생활속에서 돼지와 상관하는 민속은 푸짐하였다. 이를테면 새해들어 첫날을 닭날로 치고 이어서 개, 양 그리고 4일째를 돼지날로 꼽는데 돼지해의 돼지달 돼지날에 담근 술을 상해주라 하여 이를 빚어 마시면 상서로운 일이 있다고 믿었다. ▼비단 술뿐아니라 옛날 궁중에서는 수방나인들이 이날 수주머니를 곱게 지어서 왕에게 바치면 왕은 이것을 정승과 조정 신하들에게 하사하는데 모두가 해낭이라하여 귀하게 여겼다. 그런가하면 밤에는 궁안의 젊은 내시들이 횃불을 밝혀 구석구석을 돌며 「돼지 주둥이를 지진다」고 외치면서 악귀와 병마를 쫓았다. ▼또 여염집에서는 돼지날 콩을 물에 불렸다가 그물로 얼굴을 씻으면 아녀자들의 안면이 희고 고와진다하여 앞 다투어 세수를 하고 쥐날엔 고운 옷으로 단장을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같은 민속은 다 사라지고 돼지꿈을 꾸면 횡재를 하고 좋은일이 있다하여 그저 길몽가운데 으뜸으로 여겨질 뿐이다. ▼그런가 하면 아들을 낮추어 말할때 어린 돼지의 뜻인 「돈아」로 적기도 하고 집의 돼지라는 의미의 「가돈」이라 표현하는 풍습도 있으니 돼지를 사람이 웬만큼 가까운 짐승으로 생각하지 않았던들 어찌 이런 의인화 현상이 있었겠는가. 하나 이런경우는 모두 좋은편의 비유이지만 반대의경우 또한 없는것은 아니다. ▼속담에 「돼지에 진주목걸이」니 「돼지발톱에 편자」니 하여 격에 맞지않는 일을 두고 돼지를 일컫기도 한다. 또 어린이들이 말을 듣지않으면 돼지우리를 이르는 「대문이 하늘로 난 집으로 잡아간다」는 유의 어른들 으름장이 있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우직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탐욕스럽기도 한 모습이다. 그러면서 네발을 딛고 하늘을 바치듯 버티채 자그마한 눈을 긴 속눈썹으로 감싸고 아무런 근심걱정 없이 먹이를 보채며 주어진 천명을 달게 받으려는냥 수굿하게 나처하는 섭리를, 돼지해 첫머리에 다시금 생각지않을수없게 한다. 참된 복이란 그런것일지도 모른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하
교육 · 은퇴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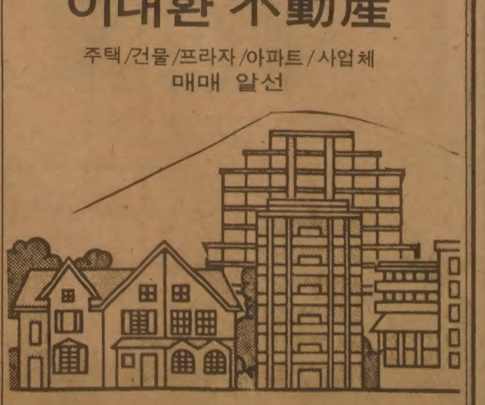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가격을 대폭 내렸읍니다

항상 싱싱한 야채와 맛있는 젓갈류와 밑반찬…
한국식품 이라면 제일 식품
712 BLOOR ST. W. TOR.(아리랑 식당옆)532-1054

이대환 不動産
주택/건물/프라자/아파트/사업체 매매 알선


전문지식과 오랜 경험으로 친절히 봉사합니다 (올게지 상담)
609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B) 535-1251
535-1260
R) 536-4250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 (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363-6077
Mrs. 전

MARVIN STARR
하루대매출
1월15일
9시~6시
토요일 하루 염가대매출
자세한 문의는
반드시 죠셉·조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외 문

올해 政局은… <1>

各黨 全黨대회와 要職개편 전망

▼▼▼▼ 새해에는 각정당이 전당대회를 치르느라 年初부터 체제개편으로 부산해질 전망이고 85년總選을 겨냥한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새해로 창당3년을 맞는 각당의 오늘의 사정과 아울러 내일의 向方을 전망해본다. 【政治部】 ▲▲▲▲

85년 總選겨냥…組織강화 加速

새로운 轉換點으로

民正黨

黨職·국회要職 동시 改編

제5공화국의 새정치를 이끌어갈 주도세력을 自處하며 81년1월 創黨의 첫발을 내디었던 民主正義黨은 이제 出帆 3년을 맞고있다.

創黨3년이되는 83년은 黨기구와 조직, 理念및 政綱政策등을 전면 재검토하는동시에 人的구성도 재정비하는 전당대회가 열린다는점에서 民正黨으로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강조되고있는점은 85년초로 예정되는 12代總選을 준비하는 선거체제를 일찍부터 구축하고 나가야한다는 점을 뜻하는것이다.

지나간 2년이 긴세월은 아니었지만 民正黨으로서는 試行錯誤도 風波도 적지않았다.

院內에서 절대다수 의석을가진 제1黨이자 執權與黨으로서 새정치를 이끌어온 主役이기때문에 民正黨이 겪어야했던시련은 유달리 큰 反響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組織의核인 중앙과 지방의 일선指導長級까지 젊은새얼굴로 모조리교체하고 교체된 새당원들을 대대적으로 교육훈련 시키는「黨員精銳化」작업은 조용한 자기 혁명이었다.

이러한조직의肥大化는他黨으로부터「정당발전의균형을 깨는 [黨獨走]」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고 黨內일부에서는 한때 소리없는 불만의 씨가 되기도했다.

그러나 창당3년을 맞는 시점에서 이같은 당원精銳化 작업은 85년總選때까지 쉬지않고 더욱 加速, 확대될 전망이다.

◇創黨3년을맞는 民正黨은 執權책임정당으로서 전당대회를계기로 국민기대에 부응할수있는 體質개편이 요구되고있다. 사진은 의원총회모습.

이러한 意志는 곧 당의 조직 기구를 대폭 개편하는 黨憲개정작업과 아울러 黨職과 국회要職의 개편을 가져올 전당대회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것으로 보고있다.

작년 5월의 黨職개편으로 1월에서 3월로 늦추어진 전당대회를 당초 예정된 黨職과 국회要職(국회의장 단 13개상임위원장)의 동시개편을 노리고있는 民正黨은 우선 개편폭이 상당히 클것이라는 관측이나오고있다.

黨憲개정으로 體質개선

「성숙한 執權黨」부각엔 苦心도

民正黨은 지난2년동안 크게보아 두번 黨職을 개편했다. 81년 여름에 몰려닥친 李允子사건의 突風으로 黨職을 개편했고 82년5월에 다시 들어가는 로 치러야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局室長級을 포함, 院內인사가 대부분 정비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黨職개편 다음으로 관심을 끄는 것은 앞으로의 黨政관계일것같다.

제5공화국의 현정부는 곧 民正黨정부라는 전제에서 民正黨은 행정부에 대한 優位論을 부르짖어 오다가 도중에 優位論이 責任論으로 바뀌었으며 이제와서 다시 優位論이 제기되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改革意志는 특히 黨소속 鄭順德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옮겨 大衆形되고 있어 注目을끈다.

이와 아울러 民正黨이 풀어야 할 과제는 85년총선을 겨냥해서 볼때 行政府의 失政이 계속 쌓이거나 행정관리들의 관료주의와 逆機能으로 정부에 대해 民心이 흐트러질때 得票전선에 異常이 생길수 있다는것을 우려하고 있는것이다.

【黃明雄기자】

돼지

12년 한번의 칭송이 자자하다. 신분을 떠나, 라디오·방송을 듣고 보나, 新正의 연휴3일이 돼지해로 가득하다.

이르기를 '돼지는 福한 짐승이다. 財運을 부르고 자식복이 따라 다닌다.' 그래서 인사하기는 '돼지꿈꾸시오-.' 말할 마다 그 고기와 가죽과 털과 뼈가 요긴하게 쓰임을 말하고, 한자들을 불러서는 新時代이래로 돼지가 베픈 陽德과 陰德을 일컬어 입이 닳는다.

오늘 吉祥, 吉兆 세상이다.

참 사람의 말이란 하기 나름이다. 한때의 讚辭를 위해서는 여느때의 貶辭를 잊는다.

흔히 좋은 말로 「돼지를 잡다」고 한다. 지저분함을 이르는 말이다. 「돼지는 추한것을 좋아 한다」는 말도 비슷한 뜻을 지닌다. 「돼지 그런 불결」고 한은 맛있는 음식을 혼자먹으려 할때의 핀잔이다. 어느 것이나 더럽고 탐욕스러움을 업신여김이다.

내 자식을 불러 豚兒라고 한다. 남을향해 나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다. 더 낮추어서는 豚犬. 豚魚는 둔간하고 예절 없음을 이르고, 豚兒犬子는 사람을 가벼이 보아 부르는 욕설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豚之尤者라 하여 돼지코의 생김새마저 시비한다. 돼지가 제사에 쓰이는 祭物이로되, 코가 하늘을 향한것은 귀신이 즐기지 않는다면서-.

기왕 돼지의 생김새에 얘기가 미쳤으니, 다음 두 글을 읽어보자. 引用句는 新聞으로부터의 便宜引用에 불과하지만 사람의 말이 얼마나 하기 나름인지를 알 것이다.

한 論客은 이렇게 말한다.

「돼지는 목이 짧다. 사뭇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 목은) 짧아서 굳은 목이다… 左顧右視의 추태는 있을수 없다. 목표를 향하여 일직선으로 직진할 뿐이다.」(薛義植=도야지의 大德)

小說家의 눈은 다르다.

「─지혜라고는 한푼어치도 없는 것 같은 표정이 돼지다. …목이 그렇게 굵어가지고 마음이 곱을 리 없고….」(桂鎔默=狀元點睛)

다음은 돼지 꼬리.

「(도야지는) 아부에 필요한 흔드는 꼬리의 소유가 필요치 않았다. 척추동물로서의 지체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꼬리의 그 명목만 세우면 그만이다.」(薛義植)

「─꼬리가 그렇게 짧아가지고 영리할 리가 없다.」(桂鎔默)

먼저 든 글을 말하자면 獻文이요, 나중 것은 그렇게 흉물스런돼지가 사람의 편리를 도모해줄것 같지 않지만─ 하는 데로 탈을 돌리고있다. 돼지의 德을 높이되, 못을 섞은 비유로 하는 말이요, 돼지를 흉보되, 그德을 생각하여 민망해 하는 것이다.

어쨌거나 돼지를 놓고하는 險談은 모두 돼지의 생김과 食住습성에서 유래한다. 더럽다거나, 먹기를 탐한다거나, 게으르다거나, 우둔하다거나가 모두 그렇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거의다 그릇된 先入見인듯 하니 맹랑하다.

외국에서 放牧하는 돼지를보면 그렇게 깨끗할수가 없다. 돼지의 본성이 그처럼 깨끗하다는 설명이다. 제대로 돼지를 키우자면 울안을 깨끗이하고 솔로 몸을 닦아주며, 햇볕을 쬐어야 한다고도 한다. 그런것을 질척한 울속에 가두어 놓고, 돼지는 더럽다고한다.

돼지가 얼마나 재빠른지는 울을 벗어난 새끼돼지를 잡아 본 사람이면 익히 안다. 미국 어느 지방에서는, 기름 바른 새끼돼지를 풀어 놓고, 얼마나 빨리 잡을수 있는지를 겨루기도 한다. 돼지가 날쌤을 말해주는 풍습이다. 그런 것을 뒤룩 뒤룩 걷지도 못하게 살찌워 놓고, 돼지는 둔하다고 한다.

돼지에 얽힌 德談도, 사실은 돼지를 높임만은 아니다.

예전의 돼지는 뒷간에서 人糞으로 키웠다. 그래도 잘 자라 살이 찌고 번식을 잘하니, 식량이 달리던 古代사회에서 그처럼 대견한 짐승이 달리 없었을리 없다. 이것이 돼지德談을 낳은 吉豚思想의 뿌리일 터이다.

결국 개만도 못하고 소만도 못한 천대를 견디어 높임을 받는듯 하나, 그래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돼지다. 그에게 돌아가는 허튼 讚辭와 마음속貶辭가 한꺼리에 닿는다.

이렇게 쓰다 보니, 이 돼지가 누구를 닮았나 싶어진다. 누구일까?

그것은 나와 너, 일하는 모든 사람, 우리 국민일지도 모른다.

金昌悅 <編輯委員>

各國의 新年메시지

세계平和·核감축 이룩 기원 레이건

來日에 대한 自信感을 강조 蘇共黨

防衛노력·「行動의해」선언 나까소네

▲미국=팔스프링즈에서휴가를 보내고있던 레이건대통령은 새해에는 세계적인 평화와 핵무기감축을 이룩하는 동시에 미국국민들을 위해서는 한국적이고 확고한 직장이 보장되기를 기원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지난31일밤 방송된 CBS TV와의 회견에서 「전세계에 우리 넓은 평화가 깃들고 소련과의 군축협상이 진전을 이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국내문제에 관해 바라는 자신의 마음은 「나의 염원일 뿐아니라 간절한 기원」이라고 강조했다.

▲소련=소련共産黨은 소련국민에게 보낸 신년메시지를 통해 소련공산당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변함없으며 핵전쟁방지와 군축을 위한 노력도 계속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당중앙위원회는 발표된 이 메시지는 또한 지난 한해는 소련인민들에게 어려웠던 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우리 인민은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공=중공인민들은 신년에 경제발전을 위해 힘을 것을 호소했다.

▲영국=마거릿·대처수상은 신년TV회견에서 새해에는 자신이 『진정한 군축추진자』가 될것을 다짐하면서 만일 소련이 유럽을 겨냥하여 배치한 중거리핵미사일을 철거한다면 영국도 미국제 순항및 퍼싱Ⅱ미사일등 유럽에 배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은 신년메시지에서 83년은 「유럽 땅에서 미·소두 초강대국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프랑스는 신년에 독자적으로 핵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나까소네·야스히로(中曾根康弘) 일본수상은 새해 기자회견에서 유럽국과 동등한 수준의 방위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83년을 『행동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레바논=아민·제마옐 레바논대통령은 83년이 레바논의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는 해가 될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세안=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앞으로의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83년에는 경각심을 높이고 열심히 일할것을 국민에게 당부했으며 李光耀싱가폴수상은 세계적인 不況때문에 싱가폴 국민에게 별로 밝지 못한 한해가 될것임을 전망하면서 국민들의 勤勞를 호소했다.

▲폴란드=헨리크·자블로스키 폴란드대통령은 모든폴란드국민들에게 국가적인 단결을 통해 국민의 분열을 극복하여 국가적인 단결을 도모할것을 호소했다.

▲교황청=교황 요한·바오로2세는 미국과 소련을 비롯 모든 나라가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신년메시지를 통해 각각 호소했다.

▲피에르·트뤼도 캐나다수상은 국민들에게 경제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을 당부했다.

각국 새해表情

○…약10만명이상의 영국시민들은 런던의 국회의사당에 걸린 대형시계(빅·벤)가 자정을 알리는 울림과 함께 83년을 맞기위해 트라팔가광장에 운집했다.

○…뉴욕시민들도 타임스광장에 모여 새해를 맞이했다.

○…일본국민들은 83년 새해를 맞아 건강과 사업의 번창및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아침일찍 神社참배를 했다. 또한 나까소네·야스히로(中曾根康弘) 일본수상은 올해 재위58년을 맞는 히로히또(裕仁) 천황에게 새해 인사를 했다.

○…전통적으로 축제분위기속에서 새해를 맞는 중공은 이번 새해에는 절제있게 보낼것을 당부했다.

사고로 얼룩진 正初의 地球村

美 미시시피江 범람 1만여명 피해

蘇 寒波엄습으로 凍死者 12명발생

日·印度·이탈리아등선 地震 터지고

▲정초부터 세계각처에서는 홍수·지진·한파·화산폭발등 천재지변이 발생, 적어도 52명이 죽고 1만1천5백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3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북부에서는 폭우가 8일만에 멈췄으나 미시시피江의 강물이계속 불어나 약1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브라질 제3의 도시인 벨로호리존테에서도 2일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폭우로 홍수가 발생, 적어도 40명이 죽었다.

일본 東京 남쪽 미야께지마와 인도의 히마찰 프라데시주 및 이탈리아의 칼라브리아의 수개지역등에서는 3일 지진이 발생했으나 인명이나 재산피해는 없었던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콕에서는 소련 한파가 엄습, 적어도 12명이 동사했다.

모스크바에서는 소련이 정초부터 금년 들어 처음으로 영하30~35도로 떨어지는 한파로 12명이 동사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하와이섬의 킬라우에아화산이 3일 폭발했다.

▲필리핀=1일 새벽 마닐라市 리잘공원에서 신년축하기념행사에 참석했던 군중들에게 한 괴한이 수류탄을 던져 최소한 4명이 죽고 다치는 등 새해에 필리핀에서는 각종사고로 모두 4명이 죽고 4백50명이 부상을 입은것으로 나타났다.

▲미국=除夜인 31일밤 뉴욕市에 있는 연방정부청사 연방법원및 경찰본부등 네곳에서 5건의 폭탄폭발사건이 일어나 경찰관 3명 민간인 1명이 크게 다쳤다.

▲네팔=에베레스트산등반에 나선 프랑스10人산악대의 일원인 벨기에의 장·부르조아씨(46)가 지난 30일 실종됐다고 네팔관광성이 2일 밝혔다.

【外信綜合】

◇美女 구출하는 숀·코너리 협보영화 007시리즈에서 제임즈·본드로 활약했던 숀·코너리가 007시리즈 복귀 제1탄으로 출연한 「다시는 안된다고 말하지말라」에서 도둑들의 손아귀로부터 한처녀(美女배우 킴·배싱어扮)를 구출하고있다. 【런던3日AP聯合=聯】

한국戰때 네이팜彈사용 反對

故처칠 英수상

故 윈스턴·처칠 前영국수상은 한국전쟁에서 미군과 영연방군인들이 네이팜彈사용에 반대했었으나 그의 내각은 네이팜탄사용중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2일 공개된 영국정부문서에서 밝혀졌다.

처칠경은 지난 1952년 8월 외무성과 국방성에보낸 각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화재도 아닌 네이팜 탄에 의해 불에 타죽거나 화상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네이팜탄사용을 반대한다』고 말할것으로 이 문서는 밝혔다.

처칠경은 또한 네이팜탄은 참전중인 병사들에의해 현대전의 중요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그 러나 어느 누구도 이 폭탄이 민간인들에게 투하될 것이라고 생각지는 못했으며 나는 이에 책임을지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문서는 밝혔다. 【런던=聯】

미니스커트 旋風 또온다

伊패션 전문가들이 豫言

세계 패션계에 미니스커트가 다시 등장하고 가죽제품의류가 유행할것으로 예상됐다.

이탈리아의 패션전문가들은 새해에도 미니스커트가 「대중적인 패션」으로 성공적인 인기를 얻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가죽제품의류가 크게 유행, 옷 장식품 핸드백 코트 바지 조끼등 가죽제품들이 중요한 여성의 필수품으로 여겨질 정도였다고 회상하면서 금년에는 82년에 다시 등장한 미니스커트가 더욱 유행할것이라고 전망. 【로마=ANSA】

맛 사 지

(near airport)
MISSISSAUGA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던다스×유니버스티)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Grant Brown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247−7161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 Eglinton / CHINA HOUSE / Bloor / Keele / Bathurst / Bayview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Holiday 기간동안은 점심시간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월~수 오후2시 − 새벽1시
목~일 오후2시 − 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겸안 해 줍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St. Charles Promenade(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블루아×영 남쪽)

本社 新春文藝 당선 詩

물노래

임 문 혁

1、물의 강림(降臨)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아져 내리는
보이지 않는 은혜의
비가 되어 몸소 내리는
하늘의 모든 곳에서
땅의 모든 곳으로
낮은 곳으로、더욱
낮은 곳으로
깊이 누운 자들의 가슴을
적시며 뿌리까지 적시며

2、물의 비밀

모올래 너를
만나면 뜨는 무지개
부드럽게 휘어지며
내게로
가슴에 꽃이
꽃이 피었네
다녀간 ·窓門이 열려 있고
열에、열에가 벙히네
곁에서 울리는 목소리、아하!
나는 풀이란다
네 오면 금새 푸르러지는
풀잎이란다
알 듯
모를 듯
은밀한 비밀
窓門만 열리면
속삭임만 스치면
산도
들판도
싱싱하게 일어서는
신비한 비밀이란다。

3、물보기

너를 보내고 물을
보면 보이지 않아
보아도 안 보일 땐
한 발 물러서지
보일 듯 안 보일 땐
지그시 눈을 감지
겹겹으로 쌓이면、보일까?
비취빛 마음이 하늘일까?

보일 듯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물…

4、물 친구

멋대로 흘러다니는
친구 自川이는 총각이지
넓푸른 바다로 가고 싶으면
그밤으로 山을 떠나고
가다가 맘에 들면
아무데나 며칠씩 고여 있지
술친구를 만나면 술이 되고
춤추면 춤이 되고
동그라면 동그랗게
길쭉하면 길쭉하게
좁으면 높게 넓으면 낮게
그러다가 미친 듯
밤낮 며칠씩 책만 읽지
읽다가 신들려 詩를 쓰지
홍얼홍얼 노랠 부르지
가야금 가락에 울먹이지
돌처럼 굳어 옆에 누우면
귓전엔 밤새 얘기소리 들리지

5、물의 昇天

높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오르는
보이지 않는 은총의
아지랑이 되어 높이 오르는
땅의 모든 곳에서
하늘의 모든 곳으로
높은 곳으로
더욱 높은 곳으로
높이 드리운 자락을
헤치며 하늘하늘
신비한 춤으로

詩審査評

예선을 거쳐온 30편 남짓의 작품들은 저마다 어느정도의 문학수련을 거친 분들의 글이라고 여길만 했다。

신선한 暗示性·律調에 함축미 흘러

그러면서 전체의 작품수준은 흡족한 선에 다다라 있질 못했는데 그 이유를 간추려 보면 첫째로 설명에 흘러 산만했고 詩語등에도 공연한 군살을 덧붙이고들 있었으며 여기에다 유행감각이라고나 할 近年의 잡다한 常習的性癖들을 띠고 있음으로 하여 그 작품의 獨自的 內在律을 짚어내지 못한 점등이 그것이다。創作의 생명이라할 독립된 個性,바꾸어 말하면 그사람만의 肉聲이 아쉬웠고 더하여 서정이 혼탁 또는 난맥에 이르고 있을 때에도 이 작품을 律格미달로 보게 됨으로써 登壇의 결단에 주저를 주게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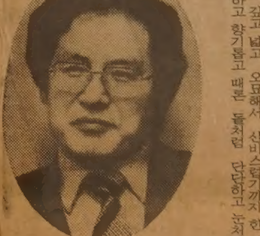
결국 임문혁씨의 連作詩「물노래」중 2章에 자리하는「물의 비밀」에 당선의 영예를 주는바,이 작품은 번쩍거리지 않는 성질의 밝은 긍정위에 서있었고 이를 신선한 暗示性내지 內在律로 북돋아 올리고 있는데다 군데군데 有用한 함축미도 없지가 않다 하겠으나 반면에 이작품의 흠이라면 지나치게 단조롭고 行처리에도 납득이 잘안가는 꺼려움이 있었다。뿐만아니라 전반적 底力感이 많이 아쉬웠다。

마지막까지 當選을 겨루었던 분들을 이에 밝히자면 김백겸씨의「비내리는 숲에서 연주한 현악 四重奏」와 金昌씨의「용소에서」그리고 鄭賢振씨의「散調」등이 그것이다。이 네분의 네작품은 저마다 상당히 좋은점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밖에도 그나름의 가능성이 역력하다고 보여지는 몇작품이 더 있었다。

諸氏의 精進을 축원할 따름이다。

徐廷柱
金南祚

당선所感



늦깎이의 짝사랑에 오늘에야 화안한 미소가…

태양은 오후에서야 불쑥 솟았다。눈물이 피잉 돌고 어지러웠다。

이성에 눈뜨면서 한 여인을 짝사랑 했다。아름답고 진실하고 깊고 넓고 오묘해서 신비스럽기까지 한 여인,따뜻하고 향기롭고 때론 돌처럼 단단하고 눈처럼 차고 칼날같이 섬뜩하고 좀처럼 속을 내보이지 않아 알 듯 하다가도 도무지 모를,애만 태우게 하던 여인。느지감치 서툰 세 개의 조각이 너덜거리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겨울밤 기인 거리를 우울한 나는 그동안 얼마나 헤매었던가。

너무 멀고 높은 곳에 꽃대 높게,안쪽에 은밀히 주위를 맴돌면서도 잡히지 않던 여인이,몇 년간 쓴 수백통의 애끓는 나의 연서에 오늘은 비로소 화안한 미소를 보낸 것이다。

온 생애와 영혼을 살라 진실한 불꽃으로 뜨겁게 사랑하리라。그것이 비록 뼈를 깎는 어려움일지라도,뜨거운 모국어로 부르겠다고…

나의 하느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詩의 아버지 朴五南 선생님과 여러 은사님,국제문학회 文友들,그리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따뜻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토록 좋아하시던 문학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득히 가신 아버님께 삼가 이 소식을 드립니다。

심사위원 두 분께 큰절 올립니다。

임 문 혁

<약력> ▲49년 忠南 唐津 出生 ▲放送通信大、國際大 國文科 卒業 ▲현재 서울 大方女中 교사。

올해는 韓英·韓獨 수교1百周年

금년은 韓英·韓獨修交 1백주년이되는 뜻깊은 해이다。高宗20년인 1883년11월26일 우리정부의 全權대신격인 閔泳穆(督辦交涉通商事務)이 서울에서 영국 전권특사 해리·퍼크스卿(駐淸英國公使)과 독일의전권특사 에드와르드·차페(駐日本橫濱총영사)와 각각 朝英·朝獨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이로부터 한국은 일제강점기간을 제외하고는 영국 독일과 국교를 맺어왔다。한국과 영국·독일은 역사적인 수교 1백주년을 계기로 정부및 민간단체를 통해 더욱 우호를 다지는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하고있다。

1883년 11월 26일 修交조약 同時조인

韓·美조약이 자극제…淸서알선 列強 利害얽히며 近代化계기

독일·영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할 무렵 우리나라는 열강의 각축장이 돼있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1882년5월22일 미국과 韓美수호통상조약을 맺은것을 계기로 문호를 열기시작했다。

이때부터 외부와의접촉을 완강히 거부했던「隱者의 王國」은 밀물같이 밀려든 열강세력의 영향을받아 역사적인 대전환기를 맞게된다。韓英·韓獨수교1백주년을 계기로 역사적인 발자취를 더듬어본다。

두나라와의 수교를 계기로 伊、露、佛등 구주각국과도 차례로 문호를 개방、동양적 질서속에 안주하고있던 朝鮮사회는 국제적갈등속에 휘말려들었고 전통사상과 사회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구의 문물을 수용하면서 근대화의 발을 내딛게된 계기가됐다。

역사의 기록을보면 美·英·獨등과 수호조약을 체결할때 淸의北洋大臣인 李鴻章이 상당한 주역을 했음을 알수있다。그리고 李鴻章의 부하이며 英·佛語등 외국어에 능통하고 외교실무에 밝은 馬建忠이란인물이 실무교섭을 주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두 나라와의 외교접촉이 시도된 것은 韓美수호조약이 체결된 해인 1882년부터였다。韓美조약이 조인된후 5일만인,5월27일당시 영국 극동함대사령관 조지·윌스제독은 韓英조약체결임무를 띠고 비질린트호에 탑승 濟物浦앞바다에 나타났다。이에앞서 駐淸영국공사 토머스·웨이드는 韓美조약의 초고가결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李鴻章에게 우리나라와의 조약교섭알선을 요청했다。李鴻章은 馬建忠에게 윌스제독과만나 조약체결을알선하라는 서신을 보냈다。馬建忠은 우리정부에 韓英수교를 권고하는 서신을 보냈다。우리全權대신이 오기전 윌스제독과馬建忠은 조약에 관한 사전협의를 했다。

우리정부는 5월28일 노령의 申헌대신에 趙寧夏를 전권대신으로,金弘集을 副官으로 임명했고 이들은 馬建忠의 안내로 윌스제독과 5월30일 회담했다。이자리에서 윌스는 韓美조약의 내용을 일부수정한 韓英조약내용을 제의했으나 馬建忠은 한자도 바꿀수없다고 거절했다。이러는동안 天津주재프랑스영사 디용이 李鴻章에게 韓佛수교알선을 요청했다。이에 당황한 윌스제독은 더이상 시일을 끌수없다고 판단,馬建忠에게 韓英조약체결을 서둘러줄것을 요청해 6월6일 濟物浦에서 韓英조약을 조인했다。

독일의 경우도 같은시기에 비숫한 경로를 밟았다。6월20일 駐淸독일공사 막스·폰·브란트를 태운 시트시호와 독일극동함대사령관을 태운 함포 볼프호가 濟物浦앞바다에 나타났다。브란트공사는 이미 韓美조약체결에 성공한 미국전권특사인 슈펠드제독을 만나 韓獨수교조약에 자신을 얻는다。

본국정부의 전권위임장과 훈령을 받은후 브란트는 天津으로 내려가 北洋衙門에조약체결의 알선을 요청했다。모친상喪당해 귀향중인 李鴻章을 대리한 兩廣총독張樹聲은 중국관리가 입회하고 韓英조약과 동일한조건을 내세워 그의 요청을받아들였다。

6월27일 우리나라 전권특사인 趙寧夏와 부관 金弘集은 독일함상에서 馬建忠과 丁汝昌(北洋水司統令)이 배석한 가운데 브란트공사와 6월30일자로 韓獨수교조약을 조인했다。

이렇게해서 英·獨양국은 韓美조약체결후 한달이내에 외교관계를 성립시켰으나 조약내용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비준을 보류해왔다。다음해인 1883년 駐日공사에서 駐淸공사로 영전한 영국의 해리·퍼크스경과 독일전권특사인 에드와르트·차페(駐日橫濱총영사)는 새로운 조약초안을 작성하여 11월3일 우리정부에 제출했다。그리고 우리정부전권특사인 閔泳穆이 이들과 교섭한끝에 11월26일 전문13조로된 本조약과 附續通商章程및 善後續約을 작성,조인했다。

이때부터 우리와 1백년간의 외교가시작된것이다。조약이 비준된것은 다음해。4월28일 퍼크스공사와 11월28일 젬프시전권공사가 서울에와 조약을비준,교환했다。

초대주한영국공사로는 해리·퍼크스경이 임명됐다。그러나 퍼크스는 駐淸公使로北京에주재하면서 겸임을 하고 있었고 실제 서울거주英國公館을 대표한사람은 W·G·애스턴총영사였다。1900년 常駐공사로 바뀌고 존·조단경이 부임했다。그러나 을사조약다음해인 1906년 영국공사관이 폐쇄됐다。

1910년 국권상실과 더불어 총영사관으로 존속하면서 駐日영국대사관의 지휘를받게됐다。광복후 46년3월주한영국대사관이 재개됐고 49년3월17일 한국정부승인에 이어 공사관으로、다시 57년 대사관으로 승격돼 오늘에이르렀다。

우리나라는 1897년7월 閔泳翊이 약1년간 구주6개국겸임대사로 부임해 초대공사격으로 활약했다。1904년」朴用和씨가 駐英特명전권공사로 상주한후 몇몇공사가 거쳤다。광복후 49년말 윤치창씨가 초대공사,57년 金用雨씨가 초대대사로 부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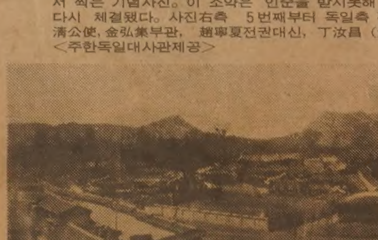
첫독일외교관으로는젬프시가 초대주한총영사관으로 부임했다。초대공사는 콘라트·폰·살데른으로 1903년부임했다。

한독관계는 그후 을사조약 국권침탈 2차세계대전등으로 단절되었다가 광복과 더불어 재개됐다。

우리나라는 54년10월 독일 래마젠에 총영사관을 설치,李漢浩박사가 초대영사로 부임했다。이듬해 총영사관을 무역대표부로,57년에는공사관으로 다시승격시켜 孫元一씨가 초대공사로 부임했다。

58년8월 대사관으로 승격되고 그해10월 金一煥상공부차관과 에르하르트 西獨경제상이 양국을 방문했다。64년12월6일 朴正熙대통령이 西獨을 공식방문했고 67년3월2일 뤼프케 서독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독관계는 절정에 이르렀다。서독에는 우리의 광부·간호원·유학생이 많이 나가있다。【林承茂기자】

◇1882년 6월30일 첫 韓獨 수호조약을 조인한후 濟物浦해안가에서 찍은 기념사진。이 조약은 인준을 받지못해 다음해 11월26일 다시 체결됐다。사진右측 5번째부터 독일측 전권공사 브란트駐淸公使,金弘集부관, 趙寧夏전권대신, 丁汝昌 (淸北洋水師제독)등。<주한독일대사관제공>



◇1895년 덕수궁앞에서 찍은 貞洞일대의 전경。왼쪽에 덕수궁의 담이있고 멀리 1890년에 세운 영국공사관이 보인다。<대한성공회 A·J·로버트선교사 (한국명 盧貞梅씨) 제공>

◇초대주한영국공사 해리·퍼크스卿。

交通相·通産相방한…세미나·연극 協演도

韓·英축하행사

駐韓영국대사관측에 따르면 1월초에 하월교통상이、4월에 코크·필드통산상이 방한 한다。3월중에는大英박물관장 데이비드·윌슨박사가 내한,한국문화재들을 둘러보고 영국미술전이 영국문화원주최로 열린다。4월중에는 高麗大英美문제연구소주최로 영국강연회가 개최되고 英國王立學會와 한국과학기술재단과의 제휴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5월중에는 유명 피아니스트 리처드·마킨과 데이비드·네슨이 내한,피아노연주회를 갖고 로열발레단이 서울공연을한다。8월에는 韓英연극인 공동주최로 셰익스피어작품중「베니스의 상인」서울공연을 갖는다。현대극단의 배우들이출연하고 런던셰익스피어그룹의 일류연출가인 패트릭·터키와 무대장식가 D·세이모아양이 연출을맡는다。9월에는 기타연주자 마이클·콘이 내한,연주를 한다。

10월에 영국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11월중에 영국의 전통의상 상품 사진등 영국을 재현시킬수있는 영국전시회를 롯데쇼핑센터에서 연다。이밖에도 영국영화 연구소대표단이 내한하여 영국영화상영회,王立學會한국지부주최 기념강연회,영국도서 전시회도 개최한다。

외무장관 교환방문…美術展·발레단 來韓

韓·獨축하행사

독일대사관측에서도 이에못지않은 기념축제퍼레이드를 짜놓고 있다。주한독일대사관측에 따르면 양국외무부장관을 비롯한 많은각료들이 교환방문을 하게될것 같다는것。또 양국국회의원단과 양국市長團들의 친선교환방문도 추진중이다。독일경제사절단과 독일관광그룹이 대거 방한할계획。세계적인 명지휘자 카라얀이 이끄는 베를린 필하머니오키스트러와 뮌헨오키스트러 퀼른발레단이 줄지어내한공연을 펼친다、독일예술의 진수를 보여주게된다。또 구텐베르크박물관의 금속활자전시회가 서울서개최되고 독일도자기 전시회도 서울서 가질계획이다。

한독미술인협회는 서울과 독일에서 고미술전을 연다。

한편 영국과 서독의 대도시에서는 한국미술5千年展이 열리고 한국의상전시회 한국고전음악및 무용공연 한국도자기전시회등이 개최된다。또 한국을소개하는 영화가 영국과 독일의 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올해는 우리의 우방이었으면서 그동안 소원했던영국·독일과의 우의를 다지고 두나라의 문화의 진수를 듬뿍 맛볼수있는 한해가 될것같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309

이렇게 이기(利己)의 입장을 고수한채 죄의식으로부터만은 선뜻하게 자유로와질수없기를 바란다는게 얼마나 큰 모순이라는 걸 증거하듯이 그 미운 계집애들은 수지의 치마꼬리에 한사코 엉켜붙어 극성을 떨었다。

동네사람들은 일남이한테 별안간 나타난 부자친척이 뭔가 의심스러워 저희끼리 수군대며 의당 도와줄일도 슬쩍 수지한테 미루고 눈치만 보기 시작했다。비록 남루하지만 인정스러워보이고 남의 일에 나서기 또한 좋아하게 생긴 사람들이었다。수지가 애쓰는 동안 아이들걱정이라도 안할수있도록 쏙빼어갈수도 있을법한데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겉돌기시작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친척인가。그 뱃속을 시험해 보고 싶은 것도 같았고、부자친척이 나타난것 때문에 가난한 이웃에게 느닷없이 질투가 나서 심술을 부리고 있는 것도 같았다。어쩌면 부자 친척의 위선이 어느 만큼 지속되나 시험해보려는 악랄한 심보인지도 모른단 생각도 들었다。

어떻든 수지는 그들이 짜증스러웠다。그들앞이 아니라면 당장 그 부자친척 놀음을 그만둘수있을 것 같았다。그러나 막상 그들이 이렇게 저 핑계로 오목이네 다섯아이를 고스란히 수지한테 떠맡기고 사라지자 새로운 힘이 솟았다。그러나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 고약한 역할은 마치 수렁처럼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녀는 남편이 없는 동안 쓸수있는대로 안쓰던 승용차를 쓰기위해 천기사한테 전화를 걸고나서 아이들을 큰 처식당으로 데리고 가 점심도 저녁도 아닌 어중간한 식사를 시켰다。계집애들의 맹렬한 먹성을 지켜보는 일남이의 얼굴엔 그 나이에 어울리지않는 고통스러운 수치심이 붉으락 푸르락했다。

『일남아、부끄러워할것없다。아이들은 다 그런거란다。너도 좀 든든히 먹어두렴。어려운 일이 닥쳐올지도 모르는데…』

수지는 소년의 자존심이 안스러워 이렇게 위로했다。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일남이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일남이와 그녀의 아이들을 한 식탁에 앉히고 불고기를 포식하던 때가 몽롱한 그리움으로 떠올랐다。일남이만이라면 유기사가 중동서 돌아올 때까지만이 아니라 생전 자기 자식처럼 떠맡아도 좋을것 같았다。그렇지만 다섯이는 곤란했다。차라리 죄의식을 일생동안 걸머지고 사는게 낫지、그 아귀같은 계집애들을 친척으로 떠맡을순 없었다。

다시 오목이를 모른다 하리라。남남으로 죽게 하리라。오목이가 죽음으로써 일남이와 약속한 친척노릇도저절로 소멸하게 내버려두리라。수지는 이렇게 자신을타이르고 다짐했다。

『아주머니 미안해요。이렇게 될줄은 몰랐어요。지금이라도 그만 두세요。우린 친척같은 거 없어도 그만이에요。여지껏도 없이 산걸요。엄말 그냥 집으로 데려가겠어요。저 혼자 어떻게 해보겠어요』

뒤늦게 다 식은 갈비탕을 한그릇 비우고난 일남이가 침통하게 말했다。

『너 혼자서?』

『네 어떻든 아버지한테 안알리고 혼자서 해보겠어요。아버지를 가시자마자 돌아오시게할순 없잖아요。아버지가 생전 처음 잡은 기회걸요。아버지는 돈을 많이 많이 버셔야돼요』

『일남아、넌 참 어른처럼 말하는구나。그렇지만 너에게 닥쳐올 일이 어떤 일이라는걸 넌 아마 모를거다』

긴겨울밤을 포근하게

최근도입된 인기절정의…… 비데오

인기있는 각종 Program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모든면에서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아오니 일차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비데오기계및녹화기판매
100% AFTER SERVICE
● 600여 각종비데오대여

상점도난방지및안전을위한비데오설치

보아서유익한가정용 비데오전문 SANYO

코리아나 비데오센터

Koreana Video Centre · 678 Bloor St, West · 532-0210

씨알한국인학교
The See-All Korean School

안내

<1983년1월부터 6월까지>

◇한국어 프로그램(무료)

매주 토요일 오전10시부터~12시30분

한국어를 전혀 공부하지 않은 학생부터 각자의 년령과 능력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유치반부터 9학년까지 모두 7학급으로 나누어져 있읍니다.

언제라도 등록을 받고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한국어교육을 통하여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자녀에게 길러 주십시요.

◇학교버스

동쪽 : 마캄×핀치에서부터 제랄드×Coxwell 지역)
서쪽 : 베이크·서부터 Bathurst×세파드 지역
● 한학생 85불, 두학생 160불

◇특수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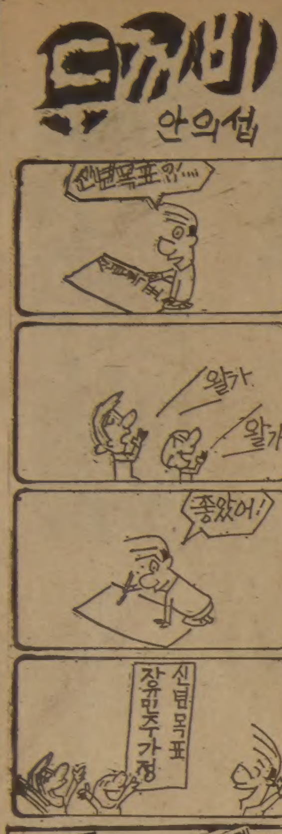
매주 토요일 오후1시부터~ 3시까지

● 중·고등부 : 컴퓨터, 영어, 음악이론
● 초등부 :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 고전무용, 영어, 수학, 태권도, 스케이트(봄에는 축구)

◇수업료

● 중고등부 : 한과목당 90불
두과목 170불
● 초등부 : 두과목을 택할 수 있음.
● 한학생 120불, 두학생 230불, 세학생 330불

◇연락처 : 960-0074
248-8885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536-1692
☎245-3539

法規지키고 事故안낸 運轉者
새해부터 保險料 덜낸다
상반기에 自家운전자부터
「자동차중심보험제」서 脫皮

새해부터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고 사고를 내지않는 운전자는 보험료를 적게낸다. 한국 자동차보험회사는 4일 현재 자동차중심으로 돼있는 보험요율제도를 선진국형 인 운전자중심으로 바꿔 실시키로 확정 했다. 자동차중심보험요율제도란 자동차의 용도나 차종에따라 일률적으로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하는 제도.

따라서 운전자의 사고·무사고기록과는 관계없이 보험료를 내기때문에 형평원칙에 어긋나는 후진국형이었을 뿐 아니라 사고예방이라는 보험제도 본래의 목적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동차보험회사는 이같은 불편과 불합리성을 없애고 운전자에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자의 성별·연령·운전및 사고경력·교통법규 위반건수등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하는 운전자 중심요율제도로 바꾸기로 한것이다.

자동차보험회사는 운전기록등이 모두전산화돼있는 자가운전자를 대상으로 우선올 해상반기중에 보험제도를 바꾸고 오는 86년까지 영업용을 포함한 전체운전자를 상대로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다. 현행 자동차중심요율제도는 지난 62년 3월부터 실시된것으로 만 20년만에 제도가 변경되는 셈이다.

자동차중심요율제도는 보험료적용이 간편하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자동차사고의 발생원인이 자동차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운전자에게 있기때문에 비합리적이다.

또 우량운전자와 불량운전자가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게돼 보험료부담의 형평원칙에 어긋나 오히려 불량운전자가 우량운전자보다 보험료부담이란 측면에서 혜택을입게되는 모순된 결과가 되며 보험제도를 통한 사고예방기능과 사고다발운전자에 대한 제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운전자중심요율제도는 우량운전자와 불량운전자에 대해 각각 합당한 요율을 적용하게돼 형평원칙에도 맞고 이와함께 우량운전자에겐 보험료의 할인혜택을 주고 불량운전자에겐 할증제도를 통해 경고를 함으로써 사고예방의 효과를 올릴수있고 사고다발자에 대한 보험요율이 높아 취업이 어려워지는등 사고다발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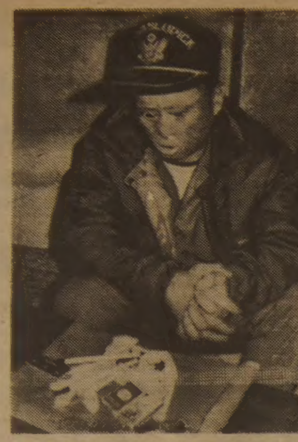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자동차가 거의 고용운전자에의해 운행되었기때문에 자동차중심의 보험요율체계를 적용해왔지만 자가운전자가 점차 늘고있어 제도변경이 불가피한 시점에 왔다.

자동차 보험회사는 오는86년 모든 운전자에대한 기록이 전산화될때까지 영업용운전자에대해서는 최고 40%까지 할인 또는 할증해주고있는 현행차등요율제도를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또 자가운전자에대한 할증 또는 할인율의 폭은 미정이나 외국의 선례를 기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운전자중심의 보험요율적용제도는 선진각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하고있는 제도로 미국은 자동차의 용도·차종을 기본으로 운전자의 성별·연령·결혼여부·주운행지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한편 교통법규위반이나 사고발생기록의 다과에따라 벌점제를 채점, 보험료의 할인·할증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영국도 미국의 보험요율체계와 비슷하나 연령과 직업을 중시하는게 특색이다. 【方旼俊기자】

"불만보면 황홀" 연쇄放火
犯人검거 "琴湖호텔도 불질렀다"


◇琴湖호텔화재 방화범으로 검거된 朴長壽씨。전신에 흉한 화상을입어 불을보면 환각상태에 빠진다고 진술했다。

【大邱】세밑에 32명의 사상자(10명사망)를 낸 大邱琴湖호텔화재는 심한 화상을입은뒤 정신이상이된 사람에의한 방화사건이었다.

이사건을 수사중인 大邱中部경찰서는 4일 朴長壽씨(23·부산影島區新仙洞1街209)를 琴湖호텔 방화범으로 검거, 정신감정을 의뢰했는데 朴씨는 琴湖호텔에방화한후 도주했다가 3일하루동안 大邱시내 3개교회를 차례로돌며 불을지르다 붙잡혔다.

현주건조물등 방화혐의로 구속된 朴씨는 경찰에서 지난79년6월께 仁川市 北區富平洞 모제분소종업원으로 근무할때 연탄가스에 중독돼 의식이 몽롱한상태에서 끓는 물을뒤집어써 얼굴등 전신에 화상을 입었는데 보상을받지 못한데다 흉하게 된 자신의 얼굴을 저주하면서 지내왔으며 그후부터 생활이 궁핍해지고 특히 보상을 받지 못한데 대한 불만등이 쌓여 방화를 저지르며 다녔다고 진술하고 또『불만보면 황홀해지고 기분이 좋으며 자신의 본래 얼굴모습이 환상으로 떠오르게된다』고 말해 경찰은 정신이상인행동으로 방화를 저지르고 다닌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朴씨는 지난해 12월29일 0시쯤 모자를눌러쓰고 전국을가장, 琴湖호텔 정문 프런트를 통해 2층 로비에침입, 복도및 지배인실등에 숨어 있다가 29일 아침 6시58분께 2층로비에 있는 데스크 아래부분에서 미리준비해간 신문지5장에 휘발유(라이터 기름종류를 부어 석냥으로 불을붙여 방화후 1층계단을 통해 달아났다는 것이다.

朴씨는 호텔을 빠져 나온즉시 영업용 택시를타고 대구東區芳村洞 東村유원지로 갔다가 다시 시내로 들어와 대구역부근 무허가 하숙집교회등을 전전하면서 그동안숨어지내왔다는 것.

경찰은 琴湖호텔 화재사건을 수사하던중 3일하오 大邱시내 3개교회에서 계속 화재가 일어나 방화사건 으로 보고 수사를벌이던중 이날 하오6시 30분께 마지막범행장소인 三德천주교회에서 불을 지르고 나오다 비상근무중이던 경찰과 교회경비원 이명언씨(56)등에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朴씨로부터 3개교회 방화사실을 자백받고 琴湖호텔화재현장에 데리고가 방화과정을 재현시켜본결과 현장상황과 일치해 진범으로 단정한것이다.

朴씨는 지난74년 부산H중학교 2년을 중퇴했는데 지난79년6월 仁川모제분소종업원으로 근무당시 뜨거운물에 데어 전신에 화상을입어 얼굴이 보기흉할정도로 일그러져 이를 비관해오다 지난81년5월부터 경북永川郡華北面金모씨집에서 머슴살이를하다 지난해 6월께 상경, 서울 등지에서 구걸 행위로 연명해왔다.

朴은 그뒤 지난해 9월 강원도 江陵등을 돌아다니다지난해 12월 大邱에도착, 동대구역 七星시장등지를 배회하면서 구걸 행위로 연명해왔다.

朴씨의 3개교회연쇄 방화사건은 다음과 같다.

▲東仁교회=3일하오2시24분께 대구中區東仁洞4街150 東仁교회 (목사 소신열·52)1층 소예배실에서 방석5장에 석냥으로 불을질러 책상등 시가25만3천원상당을 불태우고 도주.

▲중부교회=3일하오3시52분께 대구中區公平洞14의4 中部교회 2층에서 교회벽에 붙어둔 습지사를 모아 석냥으로 불을 질러 책상등 시가 8만8천원상당의 피해를내고 도주.

▲三德천주교회=3일하오6시30분께 대구中區三德洞1街64의2 三德천주교회유치원교실에서 공책등 휴지를 모아놓고 석냥으로 불을붙여 교회소유 스케치북등 시가3천5백원 상당을태움.【鄭】

큰 事故없었던 連休
撤市속 溫泉등 붐벼

癸亥年 신정연휴는 포근한 날씨속에 큰사건이나 사고가 없이 지났다. 연휴동안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대도시는 번화가와 상가가 모두 철시했고 고궁이나 극장 등산로에만 가족단위의 나들이가 많아 명절분위기를 돋우었다.

또 이기간중 국내유명관광지와 水安堡 釜谷 道高등온천에는 가족을 동반한 30여만명의 관광객들이 몰려 크게 붐볐다.

연휴중 전국에서는 8백7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56명이 숨지고 9백64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이는 지난해 7백87건 (사망50명·부상8백67명) 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서울에서는 21건의 화재가 일어나 4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교통사고는 1백55건이 발생, 7명이숨지고 1백13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편 釜山에서는 4건의해난사고가 일어나 선원4명이 실종됐고 경북永川에서는 시외버스가 고개에서굴러 1명이사망, 73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全州에서는 트럭이 어린이 3명을치어 숨지게했다.

내일小寒…춥지않을듯
釜山 영하1도예상

올해 小寒 (6일)은 그다지 춥지않을것같다.

2일 중앙기상대는 소한을 전후해 전국이 고기압권에 들어 대체로 맑고 가끔 흐린날씨에 예상기온은 서울이 최저온도 영하4도 水原영하6도 春川 영하7도 大田영하5도 光州 영하1도 全州영하2도 大邱 영하4도 釜山영하1도 정도로 예년보다는 2~3도 정도 높은편이 될것이라고 내다봤다.

乘用車 가로수받아 2명죽고 2명重傷

【釜山】4일 새벽0시20분쯤 부산東區草梁洞 부산역앞 버스정류소앞길에서 西面으로 달리던 서울3나2983호 포니승용차 (운전사 김동욱·24·서울西大門區弘濟洞363)가 길옆가로수를 들이받아 대파되면서 승용차에타고 있던 운전사김씨와 승객정미자씨(27·여·부산南區戡蠻洞264)등 2명이 숨지고 승객김순남씨(27·釜山市校洞360) 곽순희씨(27·부산南區門峴洞127)등 2명이 중상을입고 인근침례병원에 입원가료중이다.

이날사고는 운전사 김씨가 술에취해 과속운행하다가 일어났다.【鄭】

연탄가스에 둘死亡

【慶山】4일상오9시께 경북慶山郡押梁面堂里洞69번들 과주점 (주인 김근탕·여·42)내실에서 잠자던 주인 김씨와 친구 최모씨(여·40)가 연탄가스에 중독돼 숨져있는 것을 이웃 최명옥씨(71)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鄭】

老夫婦 불에타숨져

【居昌】지난2일 새벽1시께 경남居昌郡居昌邑東洞843의5 전영복씨(73)집 안방에서불이나 전씨와부인 한기검씨(77)등 노부부가 불에타숨지고 4평짜리 목조슬레이트가옥이전소, 20여만원의 재산피해를냈다.【鄭】

「종이새 소녀」에 각계서 溫情보내

具本錫서울시교육감은 4일「종이새에 띄운 소녀의 정성」(한국일보 구랍31일자 11면보도)의 주인공 金順李양(15·廣津中2년)의 치료비로 금일봉을 전달했다.

또 서울城東區龍踏洞85의5 眞堂한의원 한의사 趙東씨(59)는 順李양의 병세를 진단, 건강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서울鍾路區信3洞26통8반 林沐福씨(44·회사원)도 順李양을 위해 자신의 헌혈증서 6장을 본사에 기탁했다.

水原새마을연수원 11기동문회 (회장 太完善)도 20만원을 본사로 보내왔다.

國際商事 金태준방콕支店長
가스溫水器로 목욕중窒息死

【방콕=鄭】國際商事 방콕지점장 金泰俊씨(33)가 지난31일 상오 자택인 방콕시내의 아파트욕실에서 프로판가스에 질식사망했다.

金씨는 이날상오8시 욕실에서 프로판가스 온수기를사용, 목욕하던중 온수기에서 누출된 가스에 질식, 병원으로 옮기던중 사망한것으로 밝혀졌다.

지난10월 방콕지점장으로 부임한 金씨는 부인과 두자녀가 현지에 도착한지 4일만에 이같은 변을 당했다.

雪嶽洞관광촌 行정구역 改編으로 祝祭

【束草】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4년숙원이 풀린 雪嶽洞관광촌은 완전축제분위기였다.

지난해만 발표가있자 주민들은 현수막과 플래카드등을 내걸고 일제히 환영했다.

지난78년 관광단지로 개발된 雪嶽洞관광촌은 그동안雙川을 중심으로 북쪽(B지구)은 束草市, 남쪽(C지구)은 襄陽郡降峴面上福里로 행정구역이 양분돼 있었는데 이번 행정구역조정으로 C지구 14·72㎢구역이 束草市로 편입된 것이다.

4백9가구 1천8백35명의 주민에 여관 58채, 상가 8채(94개점포)가 들어서 있는 C지구는 雪嶽山을찾는 연간관광객 3백만명의 60%를 수용해왔다.【鄭】

◇신체장애자들이 그들을 위해 특별히 설치된 운동능력 측정기에 앉아 운전가능성을 점검받고있다.

13명에 "운전능력 可能"
障碍者운전면허시험施行 첫날

신체장애자에 대한 운전면허 시험이 4일 서울龍山區漢南洞 서울시경 제2종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열린 첫날, 38명의 장애자들이 원서를 접수, 이중 16명이 운동능력측정기에 의해 운전가능성을 체크받았다.

이들은 주로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다리가 불구이거나 한쪽팔 또는 한쪽 다리에 의수와 의족을 한 사람들로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학과및 필기시험에 앞서 이날 운동능력을 판정받았는데 응시자중 13명이 운전 가능판정을 받았다.

이날 첫번째로 운전가능판정을 받은 金仙大씨(47·서울江東區暨三洞)는 『그동안 왼쪽다리를 못써 면허를 따지 못해왔는데 이번조치로 면허를 딸수있게되어 기쁘다』며『이제 면허시험까지 합격하면 차를 사서 교통법규를 성실히 지키는 자가운전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작곡가 金秀賢씨가 金秀蓮양에 격려금

한성로타리클럽회장인 작곡가 金秀賢씨는 4일 대구琴湖호텔화재때 투숙객들을 안전대피시킨 호텔종업원 金秀蓮양 (한국일보 12월31일자11면보도)을 위해 격려금 10만원을 본사에 기탁해왔다.

前選管委長 史光郁씨

史光郁전중앙선거관리위원장(사진)이 2일 상오10시 서울西大門區延禧洞124의32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72세.

발인은 5일 상오11시 장지는 경기도坡州郡廣灘面龍尾里 선영。유족으로는 2남4녀가 있으며 연락처는 ③9025.

前產銀총재 林松本씨

산업은행총재와 駐濠洲·뉴질랜드대사를 역임한바 있는 林松本옹이 1일 하오6시3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80세. 발인은 5일 상오9시 서울龍山區漢南洞745의1 자택。연락처⑭8992.

生선運搬船 침몰
忠武떠나 日本가다 風浪에…셋失踪

【東京=鄭】忠武항을 떠나 일본오까야마현 우노로 향하던 생선운반선 안광호(49톤·선장 박재근·57)가 3일 새벽 심한 풍랑으로 침몰, 타고있던 6명의 선원중3명은 구조됐으나 3명은 실종됐다고 일본해상보안청이 4일발표했다.

일본해상보안청은 3일 새벽2시께 나가사끼현 이끼와 후꾸오까현의 오끼시마사이의 현해탄을 항해중이던 광호가 격랑으로 침몰, 6명의 선원중 3명은 부근을 항해중이던 파나마화물선 이스트·크리스탈호에의해 구조됐으나 3명은 행방불명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海外취업미끼 13명 울려
蔚山 2천6백만원 가로챈 30代구속

【蔚山】蔚山남부경찰서는 4일 에콰도르의 정유공장에 취업시켜준다고 속여 2천6백여만원을 가로챈 남미 에콰도르 키토의 내동공장 기술자 유재훈씨(35·대구시西區坪里3洞7)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10월 초 휴가를얻어 귀국한 유씨는 같은회사에 근무하며 휴가차 귀국한 박성우씨(30)와 함께 지난해10월14일 친지를통해 소개받은 정동호씨(37·蔚山市牛亭洞271)등 13명으로부터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 건설되고 있는 정유공장의 기술자로 취업을 시켜준다면서 1인당 2백만원씩 모두 2천6백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받고 출국하려던 유씨를 구속했으나 박씨등 2명은 이미 출국해버려 송환시키기로 했다.【鄭】

돼지꿈
10여년간 돼지키워온 金千圭씨
보람속에서도 은근히 「波動」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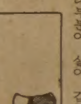
「돼지」라는 단어에는 게걸스런 대식가, 추물, 게으름뱅이란 뜻이 들어있다. 모두가 멸시의 뜻을 담긴 것이다. 잘해준 것으로『돼지꿈꾸었다』가 있을정도. 6백여 마리의 돼지식구를 거느린 金千圭씨(49·사진)는 사람들이 돼지의 아름다운 점을 모르고 있다며 혀를 차며 고 답부한다.

癸亥年에는 모두가 돼지의 착한 점을 배워 돼지꿈을 꾸어보라 고 말한다.

경기楊州郡 白石面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金씨는 10여년동안 바지자락에 돼지똥을 묻히며 살아왔다. 대부분이 돈벌이의 한방법으로 여겼지만 金씨는 남다른 애정으로 돼지를 보살폈고, 그리고 항상 돼지꿈을 꾸며 살아왔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이 돼지를 너무나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선 어느 동물보다 화목했다. 처음 만난 돼지라도 이틀이 지나면 먹이를 나누어 먹었다. 남달리 깨끗한걸 좋아했다. 배설은 우리지만 잠자는 곳은 깨끗하게 관리했다.

모성애는 눈물겨울 정도였다. 새끼를 낳은후 병이 들어도 10여일간 물만 먹고 버티면서도 새끼를 보살폈다. 젖보다 많은 수의 새끼를 낳아도 골고루 젖을 물려주는 지혜도 갖추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순하고 솔직하고 허욕이 없는 점이 본받을만 했다. 먹이는 대로 정직하게 컸다. 사람들은 게걸스런 욕심꾸러기란 인상을 갖고 있지만 일단 배가 차면 허욕을 부리지 않았다. 아무리 입에 맞는 먹이를줘도 더 먹으려 하지않았다.

돼지의 착한점을 알고나서부터는 金씨는『돼지보다못한 놈』이란말을 들을때는 분함을 참기가 어려웠다. 주인의 보살핌에 따라서는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 따르는 돼지를 빗대어 욕하는 사람이 오히려 우습다.

金씨는 새해아침부터 돼지꿈 키우기에 여념이 없다. 2년생 어미돼지가 9마리의 귀여운 새끼를 낳아 癸亥年의 첫날아침을 장식해준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웃는듯한 돼지의 얼굴처럼 올해는 웃으면서 착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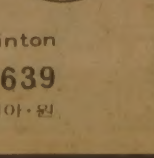
그러나 걱정하는 金씨의 얼굴은 웃음이 없다. 금년은 3년마다 닥쳐오는 돼지파동이 예상되기 때문인 듯하다. 「돼지꿈」과 「돼지파동」의 앞날이 돼서야 되겠는가. 【朴泰…기자】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틀.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실비아·윈

金宇中씨 蹴協회장에 出馬

15일 崔淳永씨와 票대결

◇崔淳永씨

◇金宇中씨

대우그룹 金宇中회장이 대한축구협회장에 출마할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오는 15일 열리는 축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서 회장 자리를 놓고 현회장 崔淳永씨와 金宇中씨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있다.

金씨는 일부축구인들의 권유로 지난 연말 蔣錫哲대우축구단장을 통해 회장출마의사를 밝히고 출국했다.

한편 뉴델리 아시안게임서 대표팀의 참패후 이번대의원 총회에서 신임을 묻기로 했던 崔淳永현회장은 金회장의 회장출마가 사실이라면 당당하게 대결할 수 밖에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축구협회는 지난 78년 회장선거때 일부 대의원들이 투표를 앞두고 중상모략등 스캔들을 뿌려 축구계에 큰물의를 일으켰었다.

30개競技團體 새執行部구성 이달중 定總

새해에는 대한체육회가맹 경기단체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사이클 역도 체조등 3개종목을 제외한 30개 경기단체가 대의원총회에서 새집행부를 구성,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향해 재출발한다.

사이클연맹의 閔庚重회장과 역도의 趙容時회장, 체조의 李富鎔회장은 회장으로선 임기만료된지 1년이안돼 가맹경기단체 규정에 따라 유임되며 나머지 경기단체장은 3년 임기를 모두 마쳐 1월중에 열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유임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33개가맹경기단체중 빙상 아이스하키 스키등 3개동계종목을 제외한 30개단체의 정기대의원 총회일정이 확정, 1월중에 모두 총회를 마치게된다.

펜싱협회가 8일 라이프주택빌딩에서 총회를 개최하는것을 스타트로 10일 배드민턴, 12일 태권도, 13일 야구 14일 육상연맹순으로 25일이전에 대부분 대의원총회를 마무리진다.

◇경기단체별 총회일정

▲육상=1월14일▲수영=1월20일▲축구=1월15일▲야구=1월13일▲테니스=미정▲연식정구=1월25일▲농구=1월25일▲배구=1월22일▲탁구=1월24일▲핸드볼=미정▲럭비풋볼=1월17일▲사이클=1월25일▲복싱=미정▲레슬링=미정▲역도=1월22일▲씨름=미정▲유도=1월25일▲검도=1월20일▲궁도=미정▲사격=1월20일▲승마=1월20일▲하키=미정▲펜싱=1월8일▲배드민턴=1월10일▲태권도=1월12일▲조정=1월30일▲롤러스케이팅=1월20일▲요트=1월22일▲볼링=미정

體育部 廳舍 서울서마련

果川이전 白紙化

체육부는 4일 果川청사이전계획을 변경, 서울시내에 청사를 마련키로 했다.

체육부는 오는7일 果川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88년올림픽과 86년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빈번히 내왕하는 국제스포츠 주요인사들과의 접촉을 원활히 하고 서울시내중심부에 위치한 대한체육회, 올림픽조직위원회 기타관련기관들과 긴밀한 업무협의등을 위해 당초계획을 변경했다.

체육부는 서울시내에 청사를 물색중인데 새로운 청사로 이전할때는 현재 중앙청과 외환은행본점에 분리되어 있는 부서를 통합한다.

仁川大 印度서 올해 첫 勝戰鼓

DCM축구 優勝

【뉴델리=聯】仁川대학팀은 3일 뉴델리에서 벌어진 印度 DCM 국제축구대회결승전 재경기에서 印度 캘커타의 모하단팀을 3-0으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仁川大는 2일 모하메단팀과의 결승전서 0-0으로 비긴후 이날 재경기에서 전반을 2-0으로 앞섰으며, 후반에서 1골을 추가, 완승했다. 모하메단팀은 이 대회에서 4차례 우승한바있다.

大學선발 농구팀은 말聯大會서 覇權

【쿠알라룸푸르=聯】한국대학농구선발팀은 1일 말레이지아의 리·분·총팀을 96-61로 제압하고 5연승을 기록, 제4회 리·산·총컵쟁탈 국제초청농구대회 패권을 차지했다.

한국을 포함한 6개팀이 참가, 6일동안 벌어진 이번대회에서 한국팀은 무패로 최우수 스포츠맨십상을 받았다.

◇최종순위=①한국대학선발②홍콩레오·푸르컵③말레이지아 셀랑고르州 개발공사④홍콩 킹·롱클럽⑤말레이지아 리·분·총클럽⑥싱가포르 아이비·하우스클럽

LA五輪대책 논의

體育會, 7일 첫會長團회의

대한체육회는 7일 상오10시 새해 첫 회장단회의를 열어 금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한편 84년 LA올림픽에 조기 대비하기위한 세부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鄭周永회장주재로 열릴 회장단회의는 2월의 불가리아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단파견 및 7월의 캐나다하계 유니버시아드 상위입상을 위한 대책, 그리고 금년에 있을 종목별 각종국제대회의 대비책등을 논의할것으로 보인다.

특히 LA올림픽에 대비한 조기대책을 강구, 단장을 비롯한 총감독을 미리 정해 총력체제로 훈련을 밀고나갈 계획이다.

副코치 朴泳煥씨

油公축구팀

油公프로축구팀은 4일 朴泳煥씨(한국전력코치)를 부코치겸 트레이너로 선임했다.

油公은 6일부터 2월20일까지 영동및영남지역에서 전지훈련을 갖게되는데 체력연마와 팀워크조성에주력할예정.

國內11·國際大會5개… 12일탁구·15일농구選手權 스타트

1월의 스포츠 메모

癸亥年을 여는 1월에는 빙상·스키등 동계스포츠가 활기를 보이게된다.

이달의 스포츠행사는 국내대회 11개와 국제대회 5개등 모두 16개.

첫국제대회인 제1회 국제대학생유도대회가 5·6양일간 도오쿄에서 열리게 되고, 11일에는 태릉스케이트장에서 회장기 전국남녀빙상대회가 개최된다.

또 12일부터 문화체육관에서는 제36회 전국남녀탁구종합선수권대회가 시작되고, 15일에는 장충체육관에서 제37회 전국남녀 농구종합선수권대회가 잇달아 열린다. 이어 21·22일에는 제12회 전국신인스키대회와 제13회 전국스키대회가 펼쳐지며 25일부터는 태릉스케이트장과 동대문링크에서 제64회 전국체전동계빙상대회가 열린다.

◇국내대회

▲제13회 회장기 전국남녀빙상경기대회(11~12일·태릉스케이트장)▲제36회 전국남녀탁구종합선수권대회(12~16일·문화체)▲제37회 전국남녀농구종합선수권대회(15~23일·장충체)▲제19회 전국남녀중고대학빙상대회(15~16일·태릉스케이트장)▲83년도 전국남녀주니어빙상대회(20~21일·태릉스케이트장)▲제12회 전국신인스키대회(21일·미정)▲제13회 회장배전국스키대회(22일·미정)▲제64회 전국체전동계빙상대회(25~27일·태릉스케이트장및 동대문링크)▲제27회 대통령배쟁탈 전국남녀배구대회및 제21회 朴晟祚배종합배구선수권대회(25~30일·장충체)▲제8회 KBS배 전국아이스하키대회(미정·동대문링크)

◇국제대회

▲제1회 국제대학생유도대회(5·6일·도오쿄)▲제3회 한일친선대학축구(15~19일·오오사까)▲83년도 日本오픈배드민턴대회(19~23일·도오쿄)▲제1회 국제청소년축구대회(28일~2월10일·방콕)▲제6회 인도네시아대통령배 국제복싱대회(29~2월3일·자카르타)

내품에 83년을 ①

100m를 10秒1로

體重늘려 "멧돼지"파워를

쓰러질때까지 뛰고 뛰고…

육상 張在根

아시아 제일의 다리 張在根(21·成均館大3년)。그는 83년 세계를 향해 닫리는 길목에 서있다. 뉴델리아시안게임 육상2백m서 아시아를 제패한 張在根은 금년 한해를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다가서는 준비기간으로 잡고 있다。『참으로 중요한 한해입니다. 앞으로의 선수생활에 사활이 걸린한해입니다. 전력 투구하겠읍니다』張在根은 비장한 각오를 보이고 있다.

張在根이 금년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체중증가, 스타트 개선, 전문기술향상등으로 집약되고 있다。신장1m84, 체중 75kg인 張在根은 신장에 비해 체중이 약간 모자란다。스프린터가 적정체중을 유지하지 못하면 스피드를 높이는 파워가 모자라게 된다。朴泳培 대표팀 코치는『금년 시즌초 우선 4~5kg을 늘리는게시급하다』고 말하고있다.

張在根의 결정적인 핸디캡은 스타트。단거리의 생명은 스피드와 스타트이다。스타트가 늦으면 1~2m가 늦어진다。張在根이 스타트만 좋았다면 뉴델리아시안게임 1백m서 금메달을 차지했을지 모른다。

2백m서 우승할수 있었던 것은 스타트의 핸디캡을 중반 피치와 스피드로 커버한 때문이다。스타트 부진을 개선하는 작업, 이것이 張在根을 세계무대로 끌어올리는 추진력이다.

또하나의 과제는 세분화된 전문기술의 주입。朴泳培코치는 해외전지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하고 있다。작년10월 한달간의 美國 전지훈련을 張在根은 이렇게말한다。『기초체력을 다지고 러닝·폼을 교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읍니다。실력이 한단계 위인 美國 선수들과같이 뛰는 폼이 저절로 딱딱해졌읍니다。그러나 내자신의 약점을 알고 열심히 노력한결과 아시안게임서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읍니다』

朴泳培코치는 폼의 교정, 팔과 다리의 균형있는 움직임, 체중에서 우러나는 파워를 더욱 길러야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張在根의 1백m기록은 10초3、2백m 기록은 20초89이다。2백m기록이 아시아 신기록이긴하지만 세계기록과는 거리가 멀다。올림픽 기록은 미국의 토미·스미드가 갖고있는 19초83, 세계기록은 79년이탈리아의 피에트로·메네아가 세운 19초72. 張在根이 세계무대서 어깨를 겨루려면 우선 20초벽을 돌파해야하는데 張在根의 현재실력으로 20초돌파를 기대하는것은 어려운 주문이다。張在根 자신도 착실한 전진을 다짐하고있다。

『금년도 1백m목표는 10초1 내지 10초2입니다。2백m 20초40의 벽을 뚫는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육상뿐만 아니라 기록경기서는 어느한계기록을 수립하면 그곳에서 좌절하는경우가 많다。張在根이 10초1의 기록을 세우는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10초1을 뛰어넘을수 있는 기본실력을 갖추는것이 더욱 중요하다。張의 최고기록이 10초1이라하더라도 항상 10초1에 접근하지 못하고 10초3~4에서 맴돈다면 LA올림픽에 희망을 걸기 힘들다。『체력컨디션등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자신이 갖고있는 기본실력을 발휘할수있도록 훈련을쌓는것이 단거리선수의 생명입니다』고 朴코치는 강조하고있다.

張在根은 6일부터 成均館大에서 실시하는 합숙훈련에 들어간다。16일부터는 대한체육회 3백m강화훈련에 합류하게된다。

『작년에는 경기 출전횟수가 적은데다 국내에는 상대가 없어 기록 신장을 기하기 어려웠읍니다。주제넘은 소리같지만 외국선수들과 많이 겨루어야 하겠읍니다』

내년 張在根이 뛸수있는 국제대회는 韓·中친선육상대회(6월), 제1회세계육상선수권대회(8월·핀란드), 쿠웨이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11월), 7월 유니버시아드등이다。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한육상경기연맹은 뉴질랜드 전지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다。국제대회와 전지훈련을 통해 세계무대로 도약할수있는지의 여부를 타진하게 된다。

朴泳培코치는 『張군의 성격이 쾌활하다。자신의 불만을 노골적으로 털어놓지않고 코치와의 상반된 견해를 대화와 연구를 통해 해결한다。성격으로 보아 금년 그에게 부과된 연습량이나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있다。

張在根자신도『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인가 결실을 얻을것으로 확신합니다。나 자신과의 투쟁에서 좌절하지 않고 83년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대비、기본실력을 다지는 해로 삼겠읍니다』고 굳은 결의를 보였다。

돼지 해에 張在根에게 거는 기대는 크다。張의 다리에 한국육상의 활로가 걸려 있다고 할수있다.

【閔炳宅기자】

◇張在根신상메모

<본 적>
전남광주시충장로5가96
<현 주 소>
전남광주시수기동44의 7호
<생년월일>
1962년 1월 2일생
<가족관계>
張洪三(부) 金点順씨(모)의 2남1녀중 장남
<체 격>
키184cm 몸무게75kg
<학 력>
76년 全南中졸
79년 光州사레지오高졸
현재 成均館大3학년
<취미>
독서

구독신청 배달사고

英 윌리엄王子 두번째公開

"붉은머리아닌 金髮"

人氣하락 다이애너王妃 헛소문 해명노력

◇생후 처음 사진기자 회견을 가진 윌리엄 왕자와 찰즈황태자부부.

국민들에 나쁜소문

○…英國국민들 사이에서 나쁜 소문이 돌고있고 인기가 하락하고있는 다이애너왕비는 헛소문을 해명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23일 윌리엄왕자를 사진 기자들앞에 공개했다。루머의 내용중 하나는 다이애너와 찰즈황태자 사이의 아이인 윌리엄 왕자가 부모를 닮지 않은 붉은 머리라는 것。

6월21일 태어난 윌리엄왕자는 8월4일 命名式때 모습을 드러낸 이후 두번째 공개된 셈이다.

이 사진 기자회견은 그들이 살고있는 서부 런던의 켄싱탄宮 정원에서 20분간 이루어졌다。찰즈 황태자부부가 나란히 앉고 흰 실크 유아복을 입은 아기를 서로 안아주며 미소짓는 분위기였는데 윌리엄왕자는 틀림없이 금발에 푸른 눈이었다。그리고 회견동안 보이지는 않았으나 아기에겐 몇개의 치아가 있다。

채식가보다 높아

○…육식을 좋아하는 여성이 채식주의자인 여성보다 유방암 발생률이 더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보스턴市 터프츠·뉴잉글랜드·메디컬 센터가 오랫동안 육식주의자와 채식주의자 여성을 상대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고기를 많이 먹는 여성에 유방암이 많다고 한다。이 논문은 육류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대사를 방해하는 것같다고 그 이유를 추리했으나 사실 여부는 알수 없다。

어쨌건 고기를 거의 못먹는 개발도상국보다는 유럽 여성에 유방암이 많고, 같은 유럽에서도 채식주의자보다는 육류를 좋아하고 많이 먹는 여성에 유방암이 많은 것만은 분명하므로 육류와 유방암과는 관계가 있다고 이 논문은 주장한다。

뉴저지州 가장심해

○…美 연방정부의 환경보전국 국장인 안나·고수크 여사는 美國내에서 공해가 가장 심한 곳 4백18개소를 발표했다。

종전에는 뉴욕의 러브·캐널이 가장 공해가 심한 곳으로 알려져 한 때는 이 지역 주민을 모두 이사를 가도록 정부에서 권고한 일까지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뉴저지州가 가장 공해가 심한 지방으로 나타났다。

공해 지역은 동부、중서부、남부의 45개州에 걸쳐있다。지역별로 세분하면 뉴저지州에 65개소, 미시간州에 46개소, 펜실베이니아州에 30개소등이다。

고수크여사는 이들 공해지역을 3년계획으로 정화하겠다고 장담했다。

중요관절 모두 이식

○…몸의 중요한 관절을 모두 인공관절로 이식한 34세의 여성이 있다。시카고에 사는 루시·번드트란는 여성은 지난 18개월간 인공 히프, 인공 허리뼈, 인공팔꿈치와 인공 손가락뼈 2개를 이식받았는데 앞으로도 9개의 인공 관절을 더 받아야한다。9개의 관절이란 무릎과 양 어깨, 세손가락, 다른쪽 팔꿈치와 다른쪽 히프이다。

번드트는 류머티즘성관절염 때문에 이처럼 거의 모든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것이다。

TV방송 왜 이런가

특정업소선전·과잉노출 잇달아

放審委, 두 프로그램「품위」거론

방송프로가 특정업소의 선전도구로 전락, 문제가 되고 있다。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姜周鎭)는 지난 18일 釜谷하와이온천에서 생방송한 KBS·1TV「1백분쇼」에 대해 방송의 품격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주의」결정을 내린데 이어 역시 같은 장소에서 녹화방송한 MBC·TV「명랑운동회」(26일방영)를 같은 이유로 30일 열리는 제92차 심의소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KBS의「1백분쇼」는 특정업소의 선전, 전속무용단의 과잉노출·선정적율동이 문제가 됐었다。

趙英男、送年디너쇼

沈守峰 특별출연도

지난봄귀국해서 활동중인 가수 趙英男의 송년 디너쇼가 29·30일 하오7시 호텔新羅대연회장에서 열린다。가까운 친지와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한 이번 디너쇼에는 가수 沈守峰양이 특별출연한다。

연예화제

공백깨고 新曲준비

崔白虎「바람」등

지난 2년간 활동이 뜸했던 가수 崔白虎(사진)가 太陽음향 藝一프러덕션으로 전속사를 옮기고 신곡「바람」「허수아비」를 준비하는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76년「내 마음 갈곳을 잃어」로 데뷔한 崔白虎는「뛰어」「영일만친구」등 히트곡을 발표했으나 80년 탤런트 金慈玉양과 결혼후 이렇다할 히트곡이 없었다。

쉬는 동안 작곡·작사공부를하는 한편 자전적 에세이를 써왔다고 밝힌 崔白虎는 곧 이를 정리해 출간할 계획이라고。

전국 DJ컨테스트

申重鉉등 찬조출연

제8회 전국 DJ컨테스트가 28·29일 유러비전·디스코·데크(舊시대극장)에서 열린다。申重鉉·金永焿·閔海景·崔白虎등이 찬조출연한다。

謹賀新年

오세호
346 Munster Ave. Toronto
L&K AUTO BODY
231-6951

공고

정기총회

한국 노년회에서는 정관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회원 모두의 참석을 바랍니다.

— 아 래 —

ㅁ일시 : 1983년1월29일(토) 낮12시30분
ㅁ장소 : 한인회관
ㅁ안건 : 1. 사무보고 4. 83년도 사업및 예산안
2. 감사보고 5. 기타
3. 결산보고

※노년회총회가 끝난후 간단한 식사후에 한인회총회가 오후 3시에 있음.

사단법인 한국노년회
회장 조영호

마쵸레스토랑

신장개업

ㅁ주류일체 취급
ㅁ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ㅁ넓은 파킹장 교통 편리

ㅁ영업시간 : 오후4시~새벽1시
ㅁ주 소 : 4035 Gordon Baker Rd. (스카브로)
☎ : 498-1300

이애선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우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번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안의섭 時事칼럼

돼지꿈만 꾸기로…

비옵니다….

간디 一代記… 아텐보로卿이 映像化

—印度의 위대한 지도자의 生涯…

20년에 걸쳐 제작

◇배우 킹슬리가 분한 1942년의 간디

정말 꼭 봐야 할 영화는 드물다. 리처드·아텐보로경(卿)이 제작한 영화「간디」야말로 꼭 봐야 할 영화중의 한 편일 것이다. 영국의 영화배우 겸 감독·제작자인 그는 20년에 걸쳐 印度의 위대한 정치적·정신적 지도자 간디에 관한 영화제작을 꿈꾸고 기획해 왔다. 실로 그처럼 방대한 기획이 시들해지고 김이 빠져 버릴수도 있는 긴 세월이다. 그러나 그는 끝내 생생하고 전기처럼 자극적이며 감동적인 작품을 만들어 냈다.

영화「간디」는 역사를 바꾼 간디일생의 사건들을 조화있게 다루고 있다. 신인배우 벤·킹슬리를 주연으로 내세워 감당할 수 없을만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그는 영화사상 아마도 가장 놀랄만한 자전적(自傳的)인 연기력을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을 것이다.

간디는 일생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재형성하고 그 과정을 통해 역시 세상도 많이 변모시켰던 인물이다. 존·브라일리가 쓴 대본도 이러한 간디의 공사(公私)생활관계를 극적으로 다룬 뛰어난 작품이다.

영화는 간디의 암살장면에서 시작된다. 면도칼로 민머리, 특유한 안경, 하얀색의 도티(印度남자들이 입는 천), 그리고 샌들차림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낯익은 간디는 1948년 78세되던 해 암살되고 만다.

그 다음 장면은 갑자기 1890년대로 돌아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변호사가 된 청년 간디가 남아프리카에서 한 열차를 타고 있는 장면을 보여준다. 젊은 머리는 손질이 잘돼 있고 런던스타일의 넥타이를 맸으며 깃이 빳빳한 와이셔츠를 입고 있다.

간디에게 특유한 힘없이 웃는 웃음과 함께 그는 어떻게 보면 영국인보다도 더 영국적인 풍모를 풍긴다.

◇킹슬리와 그의 아들。『나는 유랑하는 배우』라고 말하고 있다。

1등 객차간에 편안히 앉아있던 간디는 한 승객의 성난 명령에 깜짝 놀란다. 『네 새까만 엉덩짝을 3등칸으로 당장 옮겨라! 안 그러면 밖으로 던져버릴테다』라고 간디에게 외쳤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철도역의 흙먼지 속에서 허위적거리는 봉변을 당하고 만다. 간디는 이 사건에서 인종차별을 실감하는 쓰라림을 당했다. 그는 가끔 이 사건이 자신의 일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했었다.

바로 여기서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반세기이상에 걸친 간디 일생의 변천과정이 시작된다. 그때까지 점잖고 자신에게 만족하던 젊은 간디는 타의(他意)에 의해 남아프리카 印度人들의 권리를 고무·선동하는 정치지도자가 돼간다.

킹슬리의 환상적인 天眞性보여
크고 치밀했던 演技力

경찰에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간 간디는 비폭력저항의 투쟁원칙을 창안하고 체계화한다. 그가 이끄는 시위행동이 경찰병력에 저지되면 그 자리에 드러누워 버린다. 그리고 한 군중집회에서 간디는 분노로 들끓는 청년들에게 『나는 대의(大義)를 위해 죽어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죽일 명분은 없다』고 담담하게 말한다.

이때만해도 간디는 서구인과 다를바가 없다. 집회에서 간디는 『신이여 왕을 돌보소서』라는 노래를 부르고 『우리는 대영제국의 시민이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인다.

그리고 자기 아이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영락 없는 영국 사람처럼 보인다』고 자랑스러운 듯 아내에게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종폭력, 경제 및 사법절차를 동원한 탄압이 점차 간디를 새로운 자리로 변모시켜 놓는다. 그는 어쩔수 없이 역사의 모루(鐵砧)위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항상 깨끗이 면도한 얼굴에 콧수염이 나타나고 윤기 나던 젊은 머리는 사라져버린다.

추종자의 폭력 저항엔 斷食
3시간 7분…자극적인 감동

◇南아프리카에서 시작된 간디의 비폭력 투쟁。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수감중이던 간디가 수의(囚衣)를 걸친채 남아프리카의 잔·코리스천·스머츠장군 사무실로 불려와 印度와의 법적지위 변경에 관한 협상을 벌이는 때다.

이 장면은 관중의 온 신경을 빨아들이는 순간이다.

이 장면에서 배우이면서 남아프리카의 고명한 극작가인 아톨·퍼가드와 킹슬리가 기막힌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연기로 펼쳐지는 간디와 스머츠의 대결에서 그 시대 세상의 축소판을 볼수 있었다.

간디는 일단 수의를 벗어버리자 다시는 양복을 입지 않는다. 그의 해방투쟁을 옷으로 상징해주는 행동이다.

39살의 배우 킹슬리는 반은 印度사람인데 간디가 펼친 안팎의 대서사시적 활동을 놀랍도록 훌륭하게 파악하고 이해했다. 딱딱한 영국식 발음도 없고 대신 완강하면서 노래하는듯한 印度식 리듬으로 말할수 있게 됐다. 머리를 빡빡밀고 절반쯤 나체차림이며 새 목소리를 구사하고 약해보이는듯하나 강력한 인상으로 분장한 그는 20세기 어느 정치지도자보다 가장 정신단련이 잘되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한 간디의 모습을 새롭게 했다.

印度에 와서 킹슬리는『印度가 낯선 이국』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는 印度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네루, 지나등과 가진 간디의 정치회담。

여러해동안 영국의 로열·셰익스피어극단에서 배우로 활약한 킹슬리는 그가 간디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영역을 초월, 정말 환상적인 연기력을 보여준다. 위대한 정신력과 치밀함으로 조화된 간디의 천성을 재현해준다.

간디의 투쟁과 투쟁방식에 따른 印度의 민족주의자들도 고무된다. 그러나 간디의 비폭력저항이 폭력투쟁보다 더 한 압력을 식민지배에 가하게되자 영국인들은 동요한다. 존·길거드, 존·밀즈, 미카엘·호던, 트레보·하워드와 같은 배역진이 영국인으로 분장해 나온다.

처칠은 영국총독부 계단을 반나체로 오르내리며 영국왕실 대표와 협상을 벌이는 간디를 선동적인 탁발승이라고 부른다. 간디와 가진 한 협상에서 영국대표 한사람이『당신은 우리가 그냥 걸어나갈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간디에게 내뱉는다. 간디는『그렇소. 결국 당신들은 걸어나갈것이오』라고 태연히 대답한다.

간디는 영국이 독점한 제염업에 대한, 바다까지 3백20㎞를 시위행진, 소금을 만들어 보이기도한다. 그는 그의 추종자들이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면 단식을 단행한다. 이런 장면들은 샘·페킨파 학살보다도 훨씬 더 무게를 지니도록 효과적으로 영상화해놓고 있다.

가장 잔인한 학살은 라이아장군(에드워드·폭스가 분장)에 의해 저질러진다. 그는 휘하병력에게 평화적 시위에 나선 군중에 발포토록 명령한다. 1천6백50발의 탄환으로 무려 1천5백16명을 사살한다.

이처럼 간디의 일생을 3시간7분짜리 영화로 압축하는 어려운 작업을 아텐보로, 브라일리, 벌리·윌리엄즈, 로니·테일러와 같은 비중있는 영화인들이 참여, 완성해놓았다. 【뉴스위크誌】

◇간디가 버크·화이트 (버겐이 분함)와 함께 실을 뽑고 있다。

Happy Holiday Season
韓國料理의 傳統을 이어
韓國的인 멋을 겸비하게 된 토론토의 명물
한국관
※이미 일류요리사 유숙명씨(중화요리 전문)가 일을 하고 있읍니다.

5주년 개업기념 봉사
83년 3월말까지 (단 토·일요일은 제외)
짜장면 $3.25
곰 탕 $3.25
냉 면 $3.25
비빔밥 $4.00
육계장 $4.00
영업시간 : 오전10시—새벽1시까지

년말파티 예약 접수중, 동창회, 결혼피로연
환갑잔치등 각종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대표 나 옥녀
628 BLOOR ST. WEST, TORONTO
☎ 531-0277

事件기자수첩 신문에 안난 現場

이웃에 사는 대학생이 여고생에게 공부를 가르쳤다. 경찰은 대학생이 과외공부를 시켰다고 잡아넣어야겠다며 조서를 작성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판사는 이를 기각해버렸다. 대학생과 여고생의 어머니 사이는 이웃간의 친구로서, 옆집 여고생에게 학습방법과 질문사항을 무보수로 가르쳐준 대학생의 행위는 일종의 봉사이지, 과외지도로 볼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의 과외수업 단속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자칫 이웃 정리나 선후배간의 가르치고 배워 오던 전통적 미덕마저 위축시키지 않나 우려된다. 새해 첫 「기자수첩」을 펼친다.

사건記者 수첩

이웃여고생 진학지도 "과외다" "아니다" 끝내 기각돼

S대학 3년생 조모군(26)을 과외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직 판사인 서울형사지법 會大鉉판사는 「조군의 지도는 일종의 봉사로서 교습행위로 볼 수 없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발부를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군은 [illegible] 위층에 사는 어머니 친구가 딸 [illegible](18·H여고3년)의 수학성적이 낮아 걱정 [illegible] 공부하도록 지도해 주고 공부방법을 지도해 달라」고 부탁해 와 지난10월1일부터 11월말까지 주2회 2시간씩 무보수로 가르쳐 왔다는것.

會판사는 「조군이 어머니 친구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질문사항을 답변해 주는 정도였으므로 과외지도로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상습 女소매치기

▲서울남대문경찰서는 15일 石福順씨(31·여·절도전과11범·주거부정)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石씨는 14일 하오3시반께 서울중구소공동 롯데쇼핑1층 양말코너앞에서 쇼핑을 나온 金모씨(48·여·서울강남구서초동)의 핸드백을 면도칼로 찢고 금품을 훔치려다 그 자리에서 순찰경관에게 붙잡혔다는 것.

大邱 모국민학교 5학년때 학교를 그만둔뒤 소매치기를 하기 시작, 그후 교도소를 9번이나 갔다 온 石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2백만원짜리 예금통장까지 소지하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소매치기처럼 편한 직업이 없다」며 태연한 표정이었다고.

行人팬 태권사범

▲경북 義尾경찰서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S체육관 태권도사범 申모씨(28)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申씨는 지난13일 밤0시5분께 善山읍路上동 앞길에서 휘파람을 불며 귀가중이던 沈모군(19)을 불러 세운뒤 「한밤중에 휘파람을 불고 다니는것은 선산양반이 할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며 시비를 걸고 전위 얼굴등을 마구 때려 앞니 2개를 부러뜨렸다.

경찰에 붙잡힌 申씨는 「이날 따라 평소 도장에서 닦은 기예를 과시하고 싶어 체격이 큰 沈군을 대련상대로 삼았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후회.

태권사범 道場서 닦은 實力 行人에 과시

생활고 싸움 남편 다이나마이트 터뜨려 부인 중상

▲15일 밤10시께 서울성동구금호동3가479 유영길씨(66)집 전셋방에 세들어 사는 朴상호씨(37)가 부부싸움을 하다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朴씨의 부인 金정자씨(32)가 가슴과 배등에 전치4주의 중상을 입었다.

성전토건 착암공인 朴씨는 이날 성북구돈암동 지하철4호선409공구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부인과 생활문제로 다투다 공사장에서 갖고온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렸다는것.

이날 방안에는 장녀 선희양(11·금호국교4년)등 3남매가 있었으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기때문에 화를 면했다. 朴씨가 터뜨린 다이너마이트는 지하철 공사장에서 암반을 깨뜨리기위해 사용하는 지름 2.5㎝, 길이20㎝짜리였다고.

신문에 안난 現場

도난방지 이색간판

▲연말연시를 맞아 현금과 귀중품의 도난을 예방하기위한 이색 안내간판을 내건 빌딩이 있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釜山시中구中央동4가 K빌딩 현관에는 가로50㎝, 세로1m크기의 입간판에 「우리 빌딩내 각 사무실에는 현금및 귀중품을 일체 두지 않습니다」란 안내문을 써 붙여 도둑들이 빌딩을 털어봐야 헛수고임을 알리는 동시에 철저한 방범태세를 자경적으로 선전했다.

이 빌딩 관리과장 金모씨(52)는 「도범예방의 묘안을 생각하다가 고심끝에 이런 안내문을 내걸었다」면서 「아마도 현명한 盜선생이라면 이 안내문을 읽는 즉시 발길을 돌릴것」이라고 의기양양.

<그림·權大雄>

도박주부가 신고

▲서울강남경찰서는 대낮에 도박판을 벌여온 가정주부 鄭모씨(41·서울잠원동한양아파트3동)·李모씨(40·서울역삼동7)등 4명을 상습 도박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10일 상오11시부터 다음날 새벽5시까지 鄭씨집 안방에 모여 판돈 4백여만원을 놓고 속칭 고스톱판을 벌였다는것.

이들은 함께 도박을 하다 돈을 잃은 李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단순히 옆집 여고생에게 학습방법과 질문사항을 가르쳐준 대학생을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서울

사건記者 수첩 신문에 안난 現場

교통경찰 사고현장 조사중 또 치여重傷

▲16일밤0시5분께 서울강남구서초동956 꽃마을앞길에서 교통사고현장을 조사중이던 강남경찰서 교통계소속 金整明순경(39)이 서울4마4616호 영업용택시(운전사 金載憲·32)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金순경은 전날밤 11시20분께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승용차와 영업용버스의 충돌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 사고지점을 확인하던중 과속으로 달리던 金씨의 차에 치인것.

멧돼지잡아 입건되자 "산삼도 캐는데…"

▲강원도 寧越郡당국은 허가없이 멧돼지를 잡은 金경호씨(40·寧越郡下東面主洞里)등 4명을 야생조수보호및 수렵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입건.

같은마을 사람들인 이들 4명은 지난3월부터 4월사이에 마을 뒷산에서 무게 40㎏가량의 멧돼지새끼 2마리씩을 불법으로 잡아 각각 집에서 기르다가 적발된것.

金씨등은 「산삼을 캐는 사람들도 아무런 허가 없이 산삼을 캐 횡재를 하는 일이 많은데, 마리당 70여만원밖에 안되는 멧돼지새끼를 허가없이 잡은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며 관대한 처분을 호소.

화재사고에 긴장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12일동안 보름사이에 4개학교에서 불이 나는등 화재사고가 빈발하자 「고사라도 지내야 되겠다」고 푸념.

지난1일 경기도水原市내 수원중학교에서 불이나 도서관을 전소시킨데 이어 1일에는 平澤郡彭城邑 청담중학교에서, 13일에는 南楊州郡別內面 퇴계원 국민학교, 15일에는 楊州郡州內面 유양 국민학교에서 화재가 잇달아 발생한것.

고위층은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교실과 과학실이 타버려 앞으로는 화재발생 학교장을 엄하게 징계하기로 했다고.

▲고삐를 풀고 뛰던 황소의 엉덩이에 부딪쳐 숨진 오토바이 운전사 일가족이 황소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냈으나 숨진 오토바이 운전사의 과실이 많다고 판시, 보상청구액의 10%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大邱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李勇雨부장판사)는 17일 慶北軍威郡軍威邑 木西洞5 李相達씨 일가족4명이 李丙雨씨(慶北軍威郡軍威邑梧谷洞5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피고 李씨는 소의 고삐를 단단히 잡지않고 놓쳐 소에 의한 사고발생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책임이 있다」고 판시, 피고 李씨는 원고 일가족에게 총보상금 3천3백80만원중 10%인 3백38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 李씨 일가족은 지난해 6월27일 하오8시께 아들 俊炳씨(당시 23세)가 90㏄짜리 오토바이를 타고 군위군 군위읍 오곡동앞 폭5·8m의 국도를 운행중 때마침 고삐풀린 황소가 오곡동 방면으로 달려가는 뒤를 따라가다가 황소를 추월하려는 순간 소의 엉덩이에 부딪쳐 두개골파열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황소주인 李씨는 이날 도로 가로수에 묶어둔 소의 고삐를 푸는 순간 때마침 버스가 지나가며 경적을 울려 황소가 놀라 달아나는 바람에 고삐를 놓쳤었다.

▲황소가 이같은 사고를 내자 군위경찰서는 지난해7월초순 황소주인 李씨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입건했으나 도로교통법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사고는 모든차량의 운전자로 국한돼 있어 황소가 계차가 될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돼 석방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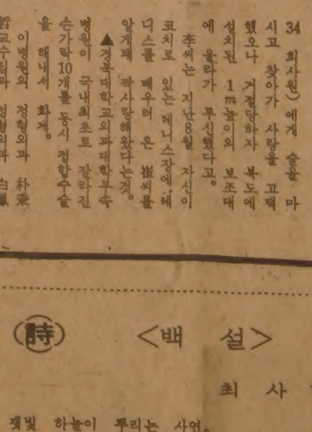
호랑이 고기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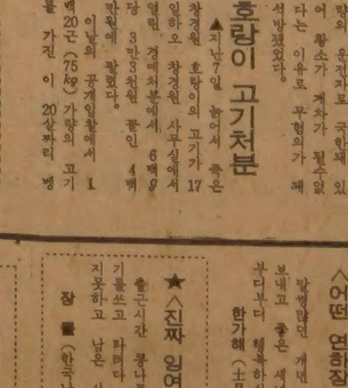
▲지난7일 늙어서 죽은 창경원 호랑이의 고기가 17일하오 창경원 사무실에서 열린 경매처분에서 6백g당 3만3천원 꼴인 4백만원에 팔렸다.

이날의 공개입찰에서 1백20근(75㎏)가량의 고기를 가진 이 20살짜리 벵골산 수놈 호랑이의 고기를 놓고 약재상, 한의사등 11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끝에 서울동작구본동292 趙男復씨(44·인삼에 약재상)에게 낙찰된것.

입찰장에는 趙씨외에도 호랑이 고기를 구하려는 수요자 20여명이 몰려들었는데 이들은 한마리 고기전체는 필요없으나 한두근씩이 필요한 사람들로 낙찰자가 조씨로 결정되자 그에게 몰려가 한두근씩 사자고 사정하기도.

이날 입찰에 참석한 한의사들에 따르면 「호경골」로 불리는 호랑이 앞발이 산경통과 간질에 특효라는 말이 있는데 대만에서 수입한 호경골 1짝의 시중가격은 28만원이라는것.





같이 술먹다 殺人

▲20일 새벽 3시30분께 서울 구로구 시흥1동58[illegible]9 우연상통앞길 포장마차에서 韓圭春씨(23·서울 도봉구 월계동 월계아파트)가 포장마차 주인 姜賢基씨(43)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께 부근에서 포장마차를 경영하는 韓씨등 4명이 姜씨의 포장마차로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던중 姜씨가 韓씨에게 「나이도 어리면서 건방지다」고 말한것이 시비가 돼 언쟁을 벌이던 중 갑자기 韓씨가 허리에 있던 흉기로 姜씨의 가슴을 찔렀다는것.

재두루미 청둥오리등 철새 남획 박제로

▲慶南 蔚山市 珍庄洞 삼산들과 太和江 하류에 지난 11월 중순께부터 몰려든 재두루미 청둥오리 등 철새들이 박제를 만들기위한 밀렵꾼들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

蔚山市 呂川洞 金德洙씨(35)는 지난17일하오4시께 태화강하류에서 죽어 떠내려가는 재두루미 3마리, 청둥오리 1마리, 고니 1마리등 5마리의 철새를 건져냈다.

金씨에 따르면 밀렵꾼들은 이들 철새의 먹이인 송어등에 극약을 주사한후 피부에 양초를 발라 물위에 던져 철새들이 먹게한다는 것. 金씨는 철새를 보호하자는 소리가 전국에 퍼지고 있는 이때에 이같은 방법으로 남획하는 밀렵꾼은 철저히 단속, 『엄벌에 처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차배달갔다 손님돈을 슬쩍한 다방레지

▲강원도 東草경찰서는 18일 여관에 차배달을 갔다가 투숙한 손님이 잠시 방을 비운사이 돈을 훔친 靑鶴洞 G다방종업원 張모양(19)을 절도혐의로 구속.

張양은 지난5일새벽1시께 속초시 청학동E여관406호실에 차배달을 갔다가 투숙객 崔모씨(49·서울강남구)가 잠시 방을 비운 사이 방에 걸린 崔씨의 호주머니에서 5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현금등 모두 63만원 상당을 훔쳤다는것.

짝사랑 하다 自殺

▲21일 새벽 1시20분께 서울 서초동 삼익아파트8동 옥상에서 李모씨(23·서울동소문동7가)가 실연을 비관, 20m아래로 몸을 던져 자살했다.

李씨는 이날 밤0시20분께 이 아파트7동에 사는 11살 연상의 崔모씨(여·34 회사원)에게 술을 마시고 찾아가 사랑을 고백했으나 거절당하자 복도에 설치된 1m높이의 보조대에 올라가 투신했다고.

李씨는 지난8월 자신이 코치로 있는 테니스장에 테니스를 배우러 온 崔씨를 알게돼 짝사랑해왔다는것.

▲경북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이 국내최초로 잘라진 손가락 10개를 동시 접합수술을 해내서 화제.

이병원의 정형외과 朴秉[illegible]교수팀과 성형외과 白[illegible]교수팀은 종이절단기에 양쪽 손가락 10개를 모두 잘린 大邱교도소 복역수 具모씨(28)의 손가락을 지난18일부터 19일하오2시까지 18시간30분동안 수술, 원상대로 접합시키는데 성공했다.

朴교수팀이 왼쪽 손가락 5개를, 白교수팀이 오른쪽 손가락5개를 각각 집도한 이날의 수술은 전자현미경을 동원, 손가락 1개를 접합시키는데 3시간이나 걸리는 어려운 것이었다.

손가락이 잘린 具씨는 지난18일하오2시께 기결복역수 작업장에서 종이절단기로 인쇄용지를 자르다가 양쪽손 엄지2개는 둘째마디부터, 나머지 8개손가락은 첫째마디부터 모두 잘려나가 이날하오3시께 병원에 입원했었다.

【정리=李升遠기자】

허여멀건씨 (최경)

(안양시 석수동 관악아파트 18동 101호)

공휴일 많은걸로

황 [illegible] 수 (서울 도봉구 쌍문3동 138-20)

<또 한해를 맞으면서>

새해엔 좋은 소식을 이렇게 기다린다.

김정희 (서울 동대문우체국 BOX 94호 현대편물)

<제발 한번만…>

권형자 (서울 도봉구 쌍문3동)

<일석 이조>

추위도 피하고 빚장이도 피하고…

한승이 (수원시 세류2동 343 삼우주택 6동 102호)

讀者 페이지

<해마다 한번씩>
육체의 보신은 보신탕집에서. 마음의 보신은 보신각 종소리로.
손진화 (서울 [illegible] 판동 77의61)

<노처녀의 자위>
내년부터는 나이를 먹어가지 [illegible]

<83년에 유행할 코 스타일>
돌창코。
—돼지해—
피카소할소 (새해 福많이 받으세요)

<돼지해의 아침>
주머니복권이 [illegible]
—[illegible]—

<어떤 연하장>
말썽많던 개년(犬年)을 보내고 좋은 새년을 맞아 부디부디 행복하시시오。
한가해 (土月文友會)

<현사의 낙서> ([illegible]의 첫발자국)

★**<진짜 잉여인간>**
출근시간 콩나물버스에 기를쓰고 타려다 끝내 타지못하고 남은 사나이。
장 [illegible] (한국낙서회)

<노처녀의 새해처세>
바깥양반이 [illegible] 것이다。
新基海 (土月文友會·서울 [illegible] 시범아파트15동 [illegible])

(詩) <백 설>

최 사 범

잿빛 하늘이 뿌리는 사연。
고운님 옷자락을 적셔
꿈을 잉태하듯 내리는 백설은
나무가지위에 꽃을 피워
온대지위엔 가지가지의 사연。
임을 보고파 창가에 살포시 내린
백설의 눈망울엔 눈물이 괴어
[illegible] 돌아가는 백설의 발길에
슬픔이 깃누나。

([illegible])

<우리는 독립기념관 설립가족>
할아버지는 노인정에서 내고, 아빠는 회사에서 내고, 엄마는 반상회에서 내고, 나는 학교에서 내고…。
원철연 (유머작가)

<당되는지요?>
—고위공직자 [illegible]는 궁금생—
장 [illegible] ([illegible])

<자랑할수 없는 사람>
숫총각 [illegible]
이[illegible] (10[illegible] S. [illegible] DR #6 L.A CA. [illegible] U.S.A)

<너무 외로와서>
전기장판을 취고로 들어놓고 잔다。
—노처녀—
[illegible]心海 (서울 중구 주교동 176의3 홍익미싱)

<진짜로 가싸나>
가짜로 [illegible]
—진짜냐 [illegible]—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재산등록 이웃사촌도 해

<삶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들>
[illegible]

<하도 복부기 [illegible] 하니까…>
[illegible]

지금 웃는중 落書

구독신청

월~토

☎

533-2361

돼지들 새해 파노라마

윷놀이도 함께 하세요

=金東國

가족과 함께 두뇌 체조를

뉴스 낱말 풀이 퀴즈

<제38회 퀴즈>

1		2	■	3		4
	■	5	6		■	
7	8	■		■	9	
■	10		■	11		■
12		■	13	■	14	15
	■	16		17	■	
18			■	19		

<힌 트>

■가로

1. 여름에는 해양에서 대륙으로, 겨울엔 대륙에서 해양으로 부는 바람
3. 청와대 사정 수석비서관
5. 닭 잡는 곳
7. 사람이 생각할수 없는 신비한 일
9. 높은 정도
10. 담을 쌓거나 집을 지을때 차곡차곡…
11. 새해에도 한 자리 숫자만…
12. 죽은 아버지
14. 토목·건축등의 구조·설계등을 기하학적으로 그린 그림
16. 서울서 가까운 스키장
18. 금품 출납사무를 보는 자격을 가진 사람
19. 쌓으면 잘 무너지는 城

■세로

1. 주판이 없어도 척척
2. 풍채와 태도
3. 정의의 복장
4. 물질이 균일한 액체로 녹는 온도
6. 1983년
8. 중국 宋나라때 蘇軾이 지은 글
9. 지상보다 높게 만든 도로
12. 연말이 되면 회식을…
13. 부엌에서 조리할 땐 칼과 이것이 있어야
15. 한번 앓고 나거나 예방하면 재차 발병하지 않는 성질
16. 동양에서는 선녀, 서양에서는…
17. 아기를 낳지 며칠 안되는 여자

■뉴스낱말풀이 퀴즈正答 <제38회>

계	절	풍	■	정	관	용
산	■	도	계	장	■	해
기	석	■	해	■	고	도
■	벽	돌	■	물	가	■
망	부	■	도	■	도	면
년	■	천	마	산	■	역
회	계	사	■	모	래	성

「역사 人物」 속의 숨은 그림 찾기

金庾信

유신은 진평왕 17년인 595년 만노군(지금의 충청북도 진천군)을 다스리는 태수 김서현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무예에 뛰어난 재질을 보였다 한다.

그는 진평왕 31년, 14세때에 어엿한 화랑으로 뽑혔다.

그때에 유신은 천관이라는 여인을 알게 되었다.

그후로 유신은 자주 천관의 집을 드나들었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만명부인은 유신에게 큰 뜻을 위해 여인을 멀리 할것을 권했다.

어머니의 잘못을 깨우친 유신은 그후로 천관 집에 발길을 끊었으나 술을 마시고 졸며 귀가하는 사이 말은 습관대로 천관의 집으로 향했다.

이에 노한 유신은 그가 아끼는 말의 목을 베어 버림으로 그의 굳은 의지를 보였다.

그후로 유신은 여러 싸움터에서 용맹을 떨쳤으며 660년에 백제, 668년에 고구려를 무너뜨렸다.

「군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위대한 명언을 남긴 그는 673년 7월 1일 죽었다.

■숨은 그림

국자, 물음표, 서[illegible]코르크, 바가지, 바늘, 럭비공, 창, 집게, 활, 파, 오리, 낙타

구성 장태산

과학화제

木星달 유로파에 토 —NASA의 두科學者 주장… 耐寒性 有機體

地球서 생명체 태어나듯이 어름表面밑에 "물이 있다면"

美항공우주국의 두명의 과학자들은 木星달의 얼음덩이 밑에 원시적인 생명체가 존재할것으로 믿고있다.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木星달에 얼음으로 덮여있는 바다가 있다고 믿어왔으나 레이·레널즈씨는 木星의 달「유로파」에서 생명체가 진화하고 있다는것은 빗나간 추측일수도 있다고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레널즈씨는 소규모의 원시적인 오아시스가 있을수있고 그곳에 내한성(耐寒性)의 유기체가 생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난 13일 열린 美지구물리학회에서 레널즈씨는 동료, 스티븐·스쿼레스씨와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그 가능성은 극히 크다」고 말했다.

이들 두 과학자들은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있는 美항공우주국 에임즈 리서치센터에 근무하고 있다.

그는「이 바닷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예의 관찰할 필요가 있다」면서「지구에서 생명체가 태어난것과 같은 원시적인 물체가 있을수 있다」고 강조했다.

레널즈씨는 79년과 80년 우주선 보이저호가 근접촬영한 유로파의 사진은 영국 내뷰어지에 실릴것이라고 말했다. 생명체에 관한 고찰이 이들의 기자회견에서 설명됐다.

「어름 지역은 아주 좋은 지역이며 시간도 극히 제한된 시간이었으나 태양계에서 표면온도가 [illegible]1백도(화씨 영하2백80도)인 이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경이적일뿐」이라고 말했다.

최근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할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어왔다. 우주선 바이킹호는 火星탐험에서 생명체를 찾아내지 못했으며 우주선이 보내온 자료가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으나 그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것이었다.

어떤 과학자들은 대기가 있는 土星의 제6위성에서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었으나 81년 보이저2호의 탐색결과 토성의 제6위성은 생명체가 필요로하는 화학물질이 생존하기엔 너무 추운 것으로 판명됐다.

지구의 달정도 크기인 木星의 달 유로파는 태양계의 다른 혹성과 위성에 있는 것과는 달리 표면이 평평해진 분화구가 부드러운 얼음층으로 덮여 있다.

토성이 이 달에 끼치는 인력때문에 생긴 조력(潮力)으로 폭이 몇마일씩 되는 얼음균열이 생겨 있다.

과학자들은 보편적으로 얼음 표면의 두께가 몇마일 정도이고 바위투성이의 바닥까지 30마일정도 깊이로 바다를 덮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레널즈씨와 스쿼레스씨의 결론은 큰 균열 틈새에 나와있는 작은 균열은 우주선카메라로 관찰하기엔 너무 작다는 것이다. 이 작은 균열이 조개지면 물이 분출되어 얼며 부석부석한 눈이 표면에 덮이게 되어 이것이 대양에서 열의 방출을 막는 단열층역할을 하게된다는 것이다.

레널즈씨는 액체상태의 물이 있다면 기온과 압력이 원시생물이 살수 있는 정도가 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어어, 생명체에 필요한 각종 원료가 물에 녹아 있으며 이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유로파 내부에서 흘러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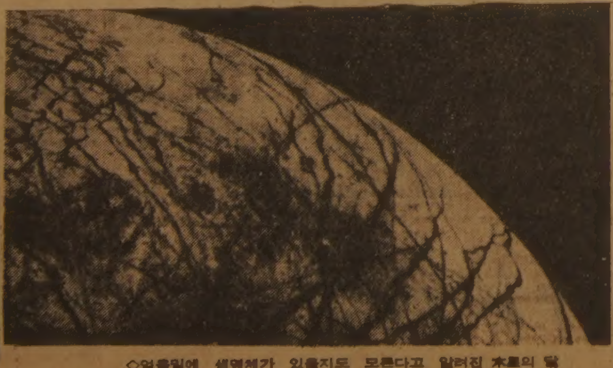
레널즈씨는 지구 남극의 만년빙의 틈새로 태양광선이 스며들듯 유로파에 덮인 눈 사이의 틈새로도 빛이 스며들수 있다고 주장하는 레널즈씨는『남극의 경우 만년빙 밑에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아주 번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남극의 만년빙 밑에 살고있는 생명체는 여러달 계속되는 겨울기간 동안 포자상태로 동면하다가 여름이 되면 활동을 재개한다』고 설명했다.

『유로파에서도 그같은 경우를 상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여건아래 어떤 물체가 진화를 하고 있는지를 추측하기는 어렵다』고 그는 말했다.

레널즈씨는 이어『지구의 심해저에서와 같이 유로파 해저에도 더운 곳이 있을수 있다』고 가정하면서『지구에서 생명이 진화하기까지엔 수십억년이 걸렸다.

열을 이용하는 생명체의 경우처럼 태양이 없어도 광합성을 할수 있는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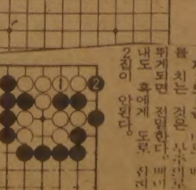


◇얼음밑에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알려진 木星의 달 표면。보이저2호가 찍은 것이다。【AP】

妙手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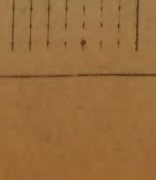
<문제도>

白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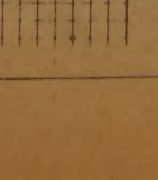


공배 메우기를 교환하다가 白이 사는 문제。전부 살리려고 하는 것은 무리。

<해답도>白先·삶



제1도=백 1로 내려서는 것이 급소. 흑 2의 환격을 피하여 백 3 [illegible] 의 이음에서 5로 5집을 [illegible] 산다.



제2도=곧 바로 백 1로 치는 것은 [illegible] 뛰게되면 전멸한다. [illegible] 내도 흑에게 도로 [illegible] 2집이 안된다.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D.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식자안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종전의 사진식자기보다
● 월등 ...한 가격
● 빠른 서비스

移民者·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민 병 철
(前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T'S A PIECE OF CAKE.

「누워서 떡먹기처럼 쉽다」를 영어로 옮겨 보라고 했더니 It's just like eating a Korean cake on the bed. 라고 말한 학생이 기억난다. 「식은 죽 먹기」라는 말도 있으나 마찬가지 「몹시 쉽다」는 뜻이다.

영어의 표현은 직역하며 틀리기 십상이다. 표현 자체를 그대로 외우는 수밖에는 별도리가없다.

한번은 잘아는 미국인 친구를 한국식당에 초대해서 Do you know how to use chopsticks? (젓가락을 사용할 줄 아세요?) 라고 물어 보았더니, It's a piece of cake. 라고 하면서 젓가락질을 능숙하게 해내는 것을 보았다. 이와 같이 미국인들은 「누워서 떡 먹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It's a piece of cake. 혹은 줄여서 A piece of cake. 라고 한다. 이것은 「한조각의 케이크를 먹는 것처럼 쉽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다.

Is the English test hard? (영어 시험이 어려운가요?)라고 묻는 사람에게 No, it's a piece of cake. (아뇨, 아주 쉬워요) 라고하면 될것이고, I don't know how to type. (타이프 칠 줄 모릅니다) 라는 상대에게 It's a piece of cake to learn.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읍니다) 이같이 대답하면 될 것이다.

「아주 쉽다」는 말의 다른 표현으로는 It's a cinch. 나 It's a snap. 혹은 It's very easy. 가 있고 「너무쉬워서 어린애도 해낼수 있다」에 꼭 들어 맞는 영어표현으로는 It's so simple a child could do it. 이 있다.

A : What kind of Korean food would you like to have?
B : I'd like to have bulgogi.
A : Fine. By the way, do you know how to use chopsticks?
B : It's a piece of cake.
A : How in the world did you learn to use them?
B : I was stationed in Korea for five years, you Know.
A : 어떤 한국음식을 드시겠어요?
B : 불고기를 들겠읍니다.
A : 좋아요. 그런데, 젓가락질을 할줄아세요?
B : 누워서 떡먹기죠.
A : 도대체 젓가락질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B : 한국에서 5년동안 복무했었죠.
A : Jerry, are you taking economics this term?
B : Yes, I have Dr. Jones as my instructor.
A : How is he as a lecturer?
B : He's O.K., but a little boring
A : How are his exams?
B : They're a piece of cake.
A : 제리, 이번학기에 경제학을 듣니?
B : 그럼, 존즈박사가 담당강사야.
A : 잘 가르치시니?
B : 약간 따분하긴하지만 괜찮아.
A : 시험은 어때?
B : 누워서 떡 먹기지.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312) 966-4060
책: 제1권(12불), 제2권, (12불), 제3권(12불)

連載 소설

스물네살의 자서전

人肉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畵

107

지난줄거리

숙아와 정열적으로 몸을 불사른 총찬은 침대 밑에 사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짐작한다. 두번째 숙아는 자지러지며 총찬에게 조심하라고 일러 주었다. 일본애들 앞잡이 노릇을 후회하는 눈치였다. 총찬은 삼선동 벙어리를 침대 밑에서 끌어내 다그쳤지만 배후를 캘 수 없었다. 결국 선제공격을 감행하기로 하고 코피숍으로 들어가 일본애들앞에 앉았다.

『당신들이 찾던 사람이 제발로 걸어왔소. 그러니 얘길 해봅시다.』

겁 먹은 듯하던 사내들이 주위를 훑어보고 안심이 되는지 엷게 웃었다.

『너희들은 나가 있어라.』

나는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풀려든 애들을 내보냈다.

『반갑습니다. 난 아베요.』

손을 내미는 사내는 부장이나 용모가 단정한 일본애였다. 우리말 발음이 제법 능통했다.

『그럼 당신들은 누구요?』

나는 그 옆에 있는 사내들을 가리켰다. 사내들이 머뭇거렸다.

『내 친구들입니다.』

『한국인요?』

『그래요.』

『주먹께나 쓰게 생겼군 그래.』

『이거 왜 이러십니까?』

한 사내가 점잖게 말대꾸했다. 코피숍엔 사람이 우리들 뿐이었다.

『나가실까요? 아베선생.』

『왜요?』

『여기서 시끄럽게 굴고 싶지 않소. 당신도 마찬가지겠지.』

『어딜 가자는거요?』

『조용한데 가서 술이나 한잔 합시다.』

『할 얘기있으면 여기서합시다.』

아베란 사내가 제법 당당하게 나왔다. 옆에 있는 사내들도 기 죽지 않으려고 어깨를 폈다.

『아베선생. 여기서 까불지 않는게 좋아. 따라와.』

나는 녀석의 멱살을 잡았다. 옆에 있던 사내가 차탁밑으로 권총을 내밀었다.

『까불면 어떻게되는지 알아?』

나는 피식 웃었다.

『임마 너 한국놈이지?』

『아가리 닥쳐!』

권총을 내민 사내가 코트를 벌리며 일어섰다. 권총끝이 조금 보였다.

『한번 싸볼래? 이 넘 떨어진 새끼야.』

나는 그 순간에 차탁을 밀었다. 그리고 뛰어 일어나며 세 녀석을 차례로 쓰러뜨렸다. 카피트 바닥에 길게 뻗어 누웠다. 애들이 달려들어 권총과 칼을 빼앗았다. 코피숍 직원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기만 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사내들은 소리 한번 지르지 못했다.

애들이 재빨리 코피숍직원들을 잡고 뭐라고 말했다. 사복 경찰관인데 범인을 잡는 거라고 거짓말 했을게 빤했다.

애들은 세 사내를 밖으로 끌어내 차에 나누어 태웠다. 조금 뒤에 두명의 사내가 피투성이가 된채 끌려나왔다. 우리 애들한테 제대로 당한 것 같았다.

『저쪽 계곡으로 끌고와라.』

나는 숙아만 태운 채 앞서 차를 몰았다. 애들이 급하게 O호텔 마당을 빠져나갔다. 주물거리다가 시끄러운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숙아는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는 것인지 벌어진 일이 너무 엄청나서 그러는지 말이 없었다.

『할말 없어?』

나는 짓궂게 한마디 던졌다.

『미안해. 정말….』

『그런 것 이제 잊어버려.』

나는 뒤차와 거리를 맞추며 속도계를 보았다. 오르막길이어서 속력을 더 낼 수 없었다. 계곡의 좁은 비포장 도로를 따라 끝까지 올라갔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여름철엔 피서객들이 있겠지만 이런 겨울철엔 올라올 사람이 없는 곳이었다.

하나님.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철없는 소녀들을 빼다 팔아먹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야 없잖습니까.

벌써 하늘이 진노했어야 옳을 일인데도, 하나님은 잠자코 있었읍니다. 악착같이 그런 신판 정신대를 막아야 할 내 동족들은 방관자가 되었으며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내들도 많습니다. 돈이라면 무슨 짓을 해도 좋다는 이 썩어빠진 사내들을 그냥 둘 수야 없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악마구리같은 녀석들까지 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이 땅의 처녀들이 팔려가 육체를 농락 당하는 게 그렇게 재미 있읍니까?

벼락맞아요.

일본애들이 철없는 소녀들 빼내 팔아먹는 꼴 더이상…

다섯명의 사내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찡찡거리고 있었다. 숙아는 차창으로 얼굴을 내민 채 우리들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 있었다.

『이봐, 아베선생. 이래도 바른대로 대지 않을 거야?』

『하겠다고 했잖습니까. 제발 이러지 마십쇼. 할테니까요.』

『그럼 읊어봐라.』

아베는 잠깐 뜸을 들였다. 다른 녀석들이 당하는 꼴을 보았기 때문에 혼이 빠진것 같았다.

『나는 내가 아는것만 말씀드릴수 있읍니다.』

『잔말 더하면 불알을 뽑아버릴테다. 네 조상놈들이 이땅에 들어와 어떻게 한지 넌 알겠지.』

『전 그런 감정 하나도 없읍니다.』

『나도 없다. 그러나 너같은 놈만 보면 피가 끓는다. 빼죽이고 싶지만….』

『우린 다른건 몰라요. 다만 우리 조직만 압니다.』

『지금까지 네 손으로 팔아먹은 처녀들이 몇명이냐?』

『삼백명도 안됩니다. 다 자원해서 갔읍니다. 물어보세요.』

『그렇다 치자. 일본으로 데려다가 어따 파냐?』

『파는게 아니라 취직시킨다고 했잖습니까.』

『그것도 좋다. 어째서 일본에 가면 술집이나 창녀촌에 넘기냐?』

『…….』

『개새끼들….』

나는 또 사정없이 아베 녀석을 쥐어 박았다. 데굴데굴 구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무릎을 꿇고 코가 땅에 닿도록 빌기만 했다.

『옷 벗겨.』

애들이 달려들어 다섯명의 옷을 다 벗겼다.

『박아버려.』

사내들 다섯명은 어스름 달밤에 계곡 물속으로 처박혔다. 몸뚱이 든 애들이 목까지만 물 밖에 나오도록 사정 두지 않고 잠겼다.

『살려만 주세요. 다 말합니다. 정말입니다. 믿어 주십쇼.』

아베가 이빨을 덜덜 떨며 무릎을 꿇고 울었다. 나머지 녀석들도 덩달아 무릎을 꿇었다.

『너희 네 놈은 쪼그려 앉아. 아베 이자식은 무릎을 펴지 못하게 해라.』

나는 내 동족이 아무리 밉더라도 무릎 꿇고 비는 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아베 녀석이 먼저 쓰러졌다. 그리고 뒤따라 사내들이 주저앉았다.

『건져내서 주물러 줘.』

『뒈지게 내두죠.』

애들은 중얼거리면서도 아베와 사내녀석들을 꺼내 물기를 닦아주고 주물러댔다. 옷을 겨우 입혀놓자 아베는 다시 무릎을 꿇었다.

『살려주시면 뭐든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빨까지 딱딱 부딪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다른 사내들을 먼저 차에 태우게 한 뒤에 아베녀석을 일으켜 세웠다.

『여기 두목은 너냐?』

『예.』

『조직은 몇개 파냐?』

『세개입니다.』

『다른 팀도 있지?』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잘 모릅니다.』

『파는 가격은 얼마씩이냐?』

『대중 없읍니다. 현지에서 결정하니까요. 그쪽 형님들이 정하니까요.』

『여기 데리고 있는 애들은 몇명이냐?』

『한 육십명 됩니다.』

『뭐해서 먹고 사냐?』

『…….』

『너 뒈지고 싶지?』

『아닙니다. 말씀 드린다고 했잖아요. 제발 저 좀 따뜻한 데로 데려가 주세요. 죄다 말씀 드리겠읍니다.』

『좋다. 수 틀리게 나오면 넌 영광스럽게 시체로 돌아갈 거다.』

『제발….』

나는 녀석을 차에 태웠다. 후훈한 기운이 있어도 녀석은 계속 떨었다.

『춘삼이 형 있는데로 와라.』

나는 먼저 출발하며 일렀다. 애들이 모두 차에 올라탔다. 오늘 시작한 김에 조직의 뿌리를 아주 캐낼 참이었다. 숙아는 시무룩해서 차창 밖만 쳐다보았다. 밤이 깊어 차량의 행렬이 많이 줄어든 거리였다.

『아베말고 또 있지?』

『저 친구 말고 더 있어. 누군지 모르지만 저 친구가 펄펄 때는 사람야. 덩치도 크고 미끈하게 생겼는데 만날 때마다 데리고 다니는 여자애가 달랐어.』

『내 일이 끝날 때까지 피해야돼. 내가 알아서 숨겨 줄테니까.』

『괜찮을까?』

『믿어도 돼.』

『다혜한테 미안해.』

순박한 계집애처럼 말했다.

『다혜 얘기 그만해.』

나는 화난 듯이 소리 질렀다. 한참 열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몰랐지만 호텔 밖으로 나오는 순간 아직도 비행기를 타고 있을 다혜 얼굴이 문득 떠올랐다.

춘삼이 형은 자리에 없었다. 나는 애들을 돌려보내고 몇명만 자리를 지키게 했다.

탈진상태가 된 아베와 사내 녀석들은 채념한 듯 술술 쏟아 놓았다.

일본의 지시를 받는 총두목은 사사끼란 친구였고 아베는 한국말과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정도였다. 그들이 나를 노린 것은 한개의 조직이 무너진 뒤였다. 삼선동 애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세력다툼인 것처럼 위장한 것도 그들의 치밀한 계획이었고 다혜 친구인 숙아를 매수한 것도 일본유학과 경제적 도움을 미끼로 나를 유혹하게 한 뒤에 삼선동 애들에게 인계할 작전이었다는 걸 알았다.

일본조직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큰것 같았다. 아베도 점조직에 불과해 사사끼 이상의 조직과 규모는 알지 못했다.

답답한 건 나였다. 아베 일당을 잡았지만 철저한 점조직이어서 사사끼란 총두목의 정체나 소재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다행인 것은 아베가 유일하게 연락할 수 있는 일본의 연락처가 후꾸오까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럼 후꾸오까에 연락할 수 있겠지?』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사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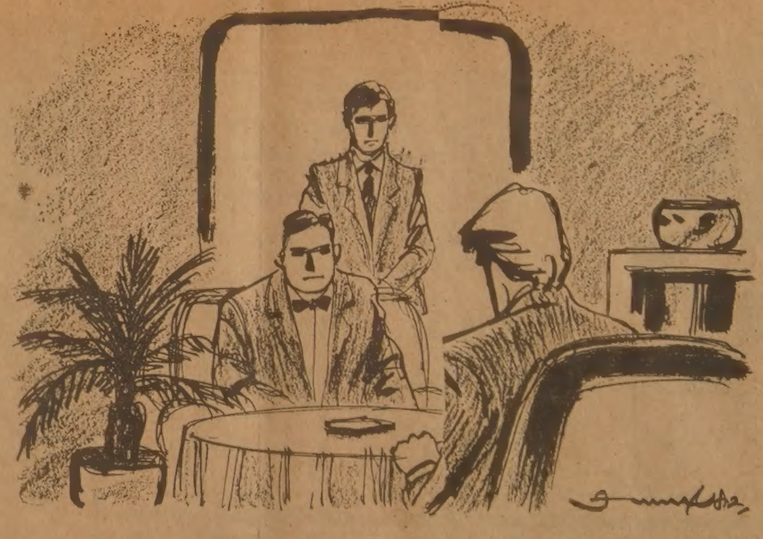
『그건 어렵습니다.』

『좋다. 연락해라. 내가 너희들 한국 내의 조직을 몽땅 박살냈다고.』

『지금 연락하겠습니다.』

아베에게 전화를 붙잡고 수첩에 적힌대로 전화를 연결했다.

일본 말이라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이곳에서 벌어진 상황을 대충 설명하는 것 같았다.



총찬, 우린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살려두는 겁니다

『직접 통화하고 싶답니다.』

아베가 전화기를 내밀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받았다.

『임마, 한국말로 해!』

나는 소리를 빽 지르고 전화기를 아베에게 넘겨 주었다. 그쪽 녀석은 한국말을 할 줄 몰랐고 나는 일본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제가 통역해 드리겠읍니다.』

『그래. 너희들 조직의 씨를 말리겠다고 해.』

아베가 일본말로 지껄였다. 그리고 난처한 얼굴로 돌아섰다.

『저쪽에서 끝까지 복수를 하겠답니다.』

『개자식들. 정정당당하게 붙어 보자고 해라. 뒤통수 치는 놈들하곤 상종도 하기 싫으니까.』

『그럼 초청하겠답니다.』

아베가 메모지를 내밀고 말했다.

『날 오란 말이냐?』

『사사끼 형님을 만나시랍니다. 그러면 아주 정중하게 모시겠답니다.』

『좋다. 가겠다고 해라.』

아베가 한참 동안 일본어로 메모를 끝내고 나더니 씨익 웃었다.

『안부 드리랍니다.』

『고맙다 쪽발이들아. 이렇게 전해라.』

아베가 씨익 웃더니 몇마디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사사끼는?』

『내일 제게 연락하도록 하겠답니다.』

『그럼 돌아가라.』

『저만요?』

『빨리 꺼져 임마. 그리고 내일 이곳으로 연락해.』

아베는 문을 열고 나갔다. 부석부석한 얼굴이 가련해 보였다. 남은 사내 녀석들은 겁 먹은 얼굴을 풀지 않았다.

『이젠 무릎 꿇어라.』

사내들이 재빨리 무릎을 꿇었다. 기운빠진 표정이었다.

『이 속 없는 자식들아. 무슨 짓을 못해서 우리나라 처녀를 쪽발이들한테 팔아처먹는 짓을 해야되는지 생각해봐라. 일제시대에 정신대로 끌려간 여자들이 그만큼 당했으면 됐지 더이상 어쩌라는 거냐? 네 여동생이 팔려갔다고 생각해봐. 이 쳐죽여도 시원치 않은 놈들아. 쪽발이는 그렇다 치자. 너희들은 네동족을 팔아서 어쩌자는 거냐? 차라리 피를 팔아 목구멍을 지킬 일이지.』

『형님, 다시는 이런 것 않겠읍니다. 한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사내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녀석의 턱을 올려붙였다.

『전부 엎드려라.』

사내들은 엎드렸다. 몽둥이로 화가 삭을 때까지 때렸다. 사내들이 죽 뻗은채 거품을 쏟았다.

그들은 그 동안 처녀들을 팔아먹던 수법을 죄다 털어놓았다. 방법도 여러가지였다. 고전무용하는 여자들을 정당한 해외취업이란 명목으로 불러내어 수속과 취업 알선비란 명목으로 돈을 착취한 뒤에 팔아먹는 수도 있었고 아예 처음부터 바란 계집애들을 모아서 몸 파는 걸 전제로 보내는 수도 있었다. 일본의 여자값이 비싸다는 데서 한국 여자의 수입이 톡톡한 재미를 붙여주는 것 확실한 것 같았다. 어쨌든 속아서 넘어가는 여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일본의 여자장사꾼들은 걸러치기 수법으로 한국 여자를 다른 나라로 다시 넘기는 릴레이 판매도 한다고 했다. 동남아 지역에 손을 뻗쳐 여러가지 형태로 여자장사를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조직력은 대단한 것 같았다.

『그 정도로 떼식구가 먹고 살진 못할 거 아니냐? 다른 짓 하는 게 있다는 것도 안다.』

사내들은 처음에 버티다가 못견디겠는지 마약밀매와 밀수행위까지 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아베 녀석은 끝까지 밀수와 마약밀매를 숨겼었다. 그들이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안될 사업의 극비라는 걸 쉽게 눈치 챌 수 있었다. 어쩌면 마약밀매와 밀수를 위장하기 위해 여자 장사를 벌이고 교묘한 탈출과 조직력으로 이끌고 가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면 극악한 일까지 서슴없이 해치울 수 밖에 없는 애들이었다.

그러나 하수인에 지나지 않아서 자잘한 심부름이나 폭력의 전위부대로 그들의 방패구실밖에 하지 못하는 애들이었다. 중대한 밀수나 마약밀매를 다루는 건 사사끼의 개인조직이나 비밀조직들에 한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다. 증거를 잡으려면 상당한 조직력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나 그들의 패거리가 되어 비밀을 캐내는 방법밖에 없을 것같았다.

사내애들을 야무지게 다루어서 보냈다. 엉금엉금 기어 나가는 애들을 쳐다보며 쪽발이들에게 더 증오심이 북받쳐 올라왔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걸 과시하면서 사람값이 싼 우리나라에 들어와 쾌락을 맛보는 게 부족해 이젠 아예 비밀조직을 이용해 처녀들을 사가는 짓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순진한 처녀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 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아베 녀석과 사내애들이 주절거린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굴욕적인 생활을 하는지 알수 있었다.

사사끼와 마주 앉았다. 풍채가 좋았다. 단정한 용모와 차림새가 일급 신사였다. 아베가 그 옆에 앉아서 통역을 해주었다. 사사끼도 한국말을 조금씩은 하는것 같았지만 끝까지 일본말로 나를 상대했다.

『당신을 이 자리에서 한방에 없애줄 수 있지만 참는 거요. 이유는 단 하나요. 당신을 없앤다고 해서 그 조직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요.』

나는 모질게 말했다. 사사끼는 껄껄 웃었다.

『우리도 당신을 감쪽같이 없앨 수 있었소. 우린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살려두는 겁니다.』

아베가 내게 전한 답변이었다. 나는 한대 올려붙이려다 참았다.

『형님들이 뵙잡니다. 초청장을 갖고 떠났답니다.』

아베의 설명에 의하면 일본애들은 나와 결전을 벌이지 않고 타협하기 위해서 정중하게 초청하겠다는 것이었다. 일본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란 것도 알 수 있었다.

『가겠소.』

나는 무서운 결심을 했다.

<다음호에 계속>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전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씰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 레스토랑
각종한식·중국식·양식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스카보로) 498-1300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한인 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Enco Mechanical 냉동기·히팅(전기·개스) 수리·설비.
Lic. Mechanic, Engineering Technician
전화: 769-5956 김명근.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광고문의 533-2361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완 더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치 과

Dr. Mark Kochman ◉전화: 233-9454, 233-4888
(월~토)9:00am-6:00pm, (목)9:00am-9:00pm
3101 Bloor St. W. Ste 203. "Season's Greetings"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 - 스카보로
◉1974년도 육대학 경제과 전공 ◉1976년도 육대학 경영관리학 회계학전공 ◉현 캐나다최대의 컴퓨터회사의 어카운터 메니져 ◉소규모사업체 회계사무 6년경험
44 Gil Roy Dr. Scar. Ont. M1P 1J9
전화 : 752-9332(R) (오후 5시30분이후)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 – 오후6시
금 : 오전8시 – 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주방헬퍼 구함(무경험자 관계없음)
직접 내방원함. 25 The West Mall
(Sherway Garden Mall) Golden Bird B.B.Q. Chicken

Indoor골프장에서
파타임으로 일할 여자분 구함.(학생환영)
전화: 298–3584, 638–4658

출퇴근 하시면서 3살 아이 봐주실분
다운타운 지역
전화 : 368–6544 Mrs. 리

풀타임 웨이트레스 급히 구함.
전화 : 757–6334

도나스 가게에서 주말에 파트타임으로
밤일 하실분 구함.(키프링 & 렉스데일)
전화 : 743–3822

한식·일식·중식 겸한 요리사 3명 구함.
초봉 : $1,400 (일식·중식은 한국스타일 원함)
전화 : (403)252–2225 (캘가리)

영주권 가지신 분으로 입주하여 애기봐주시며
가족같이 지내실분
전화 : 271–1482(낮), 274–5685(저녁)

입주하셔서 애기돌봐 주실분 구합니다.
전화: 669–6438

경험있는 키친 헬퍼 및
웨이트레스 구함.
전화 : 251–1908

시외 그로서리가게 메니저 구함.
Barrie 근처.
전화: 1–705–458–4326

카운터 헬퍼구함. 영어 잘해야 하고 적극적이고 바쁜 점심시간을 잘해내야 함.
전화 : 449–2012(7–10 pm) Mr./Mrs. Goomar

식당(32좌석) 누구든지 맡아서 운영하실분.
렌트: 월 $350. ◉527 Evans Ave.
전화: 823–5135(R) 691–6768(B) Mr. 김

맥스밀크에서 금·토·일 일할
유경험 Cashier 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 278–4867

인쇄관계
잉크 배합사 구함. 우대하겠음.
전화: (B)247–8870, (R)242–4319 Mr. 김

가게를 파실려구요?
사람을 구하신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 입니다.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외롭고 쓸쓸한 남자(담배 안핌) 결혼대상자로 토론토나 한국에 있는 30~40대 한국미혼여성을 찾읍니다.
전화 : 653–3105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	224–2491

교민단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3–3674
승공문화협회	444–3658

개인지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9–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윈치 & 베더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동부토요학교. ◉757–7828(김지현)
지원자격: 5학년~10학년. 영어·수학·한국어 ◉UT재학생과 졸업생 장소: Midland Ave. Collegiate Ins.(에그린톤×미드랜드)

매 매

Van Truck – 77년도 Dodge 흰색
6만5천 Km. Excellent Condition
전화 : 533–2368 Mrs. 김

매매(TUCK SHOP)
100% Cash Deal
전화: 242–2630 Mr. Pak(밤10시30분 이후)

스카보로에 잘 꾸며진 일본음식점 매매.
한국음식점에도 잘 어울림
전화 : 755–3010(3pm–5pm) Fumi

스카보로에 있는 Bakery 매매함.
경험없어도 할수 있음.
주매상 : $3,500 아스킹 : $59,000
가격에 모든 도구 포함돼 있음.
전화 : 881–5186

$107,000 Net plus. 년매상임. 11 스토아. 새로운 플라자 하이웨이가 만나는 지점이고 고층아파트 들어서고 매우 바쁜 거리임.
아스킹: 1,200,000. 25% 다운
Doris Burda 763–5555
R. Cholken Co., Ltd.

나니아가라폭포 근방의 개조된 호텔에 투자하실분.
파드너 쉽 가능.
최고의 투자임.
전화: 1–416–735–9930 John Psutka
주소: 30½ Niagara St. Welland L3C 4Z5

가게달린 건물 매매
◉2층에 살림집(1200 sq/ft)
◉가게(1200 sq/ft) ◉지하실(1200 sq/ft)
◉가게리스는 금년 9월에 끝남.
◉현주매상 $4,000이나 더 Sale을 많이 올릴 가능성있는 가게임. 전화: 243–0233 Mr. 김

◉ZET Spray $150. ◉Pop 머신 $200.
◉Teyler Slush 머신 $6,000.(6개월 사용했음)
전화 : 282–3553(낮), 284–9325(저녁)

– Choice 레스토랑 비지네스와 부동산 매매
– Deli 커피숍. 주매상 : $3,000. 동쪽에 있는 바쁜지역. 쉽게 운영할 수 있음. 아스킹 : $72,500
– 상업용 2층 빌딩.
1층에 레스토랑 있고, 2층엔 2 Bed Rm.아파트 미래 년 렌트인캄 $13,800. 아스킹 : $134,500
전화 : 421–2214 Miss Cheng.
New Bliss Real Estate Co–operation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5,500. 리스 : 4년+5년 옵션
◉주매상 : $3,500. 리스 : 4년+5년 옵션
A.E. LePage Real Estate
전화 : 741–9170 Mrs. 우

쇼핑 Mall 속에 가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에 보석 가게.
특별한 리스. 새롭게 단장돼 있음.
Mall 안에 거주자들이 정해져 있음.
전화로 예약 바람. 9시~3시.
전화 : 225–0935

SAY **CHARGE IT!**
WE HONOR
master charge
오시지 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한국일보 : 533–2361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1 Bed Rm. 아파트렌트(서브렛)
Don Mills 지역. 월 $311.00 • Adult Building
전화 : 447–1785 • 225–2077

방세 놓습니다. ◉여자분에 한함.
적당한 가격.
전화: 481–4330(저녁)

Office space for rent
1500 Sq.Ft. 1736 Queen St. W. 불에 타지 않는 안전창고 100 Sq.Ft. 전화 : 960–1888

방 세놓음. 조용한 가정. 댄포스와 돈랜드지하철서 도보로 5분거리. 교통편리. 화장실·취사시설 공유. 1주당 $35.00
전화 : (R)466–2455, (B)823–9040 ext. 2165 Mrs. 조

1 Bed Rm. 방세 놓습니다. 부엌포함.
월/$200. 653A Bloor St. W.
전화 : 533–0168 (Mr. 김) (오후 1시~밤 10시사이 전화요)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용)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서판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윈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1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조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배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훈모 부동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638–6919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246–4384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대환 부동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사무용구및 계산기

SB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한칼라현상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지개칼라–촬영전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물센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병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HOME COMPUTERS
▲판매및 수리 ▲파트타임 비지네스에 관심있으신분 전화바람. 전화 : 239–1698 오후6시~9시 (MR. 이)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입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퍼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에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